PDF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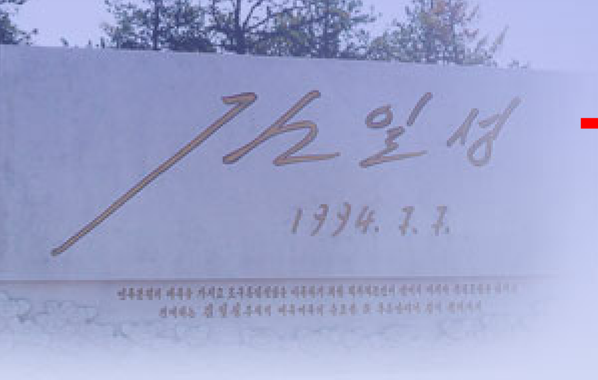
통일여명

1주년 기념

6.15주간 편집부

통일여명

6.15주간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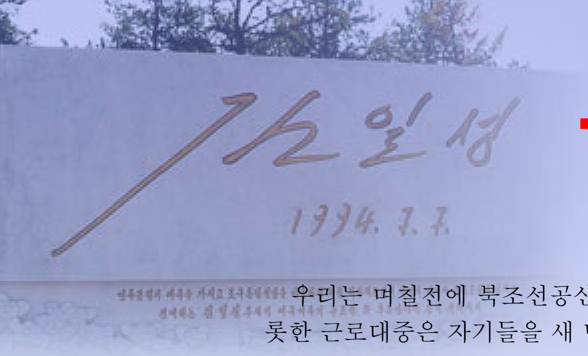




당보를 창간할 데 대하여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34(1945)년 10월 17일



우리는 며칠전에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자기들을 새 민주조선 건설의 길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여 줄 위력한 전위부대,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이 창건된 것만큼 우리는 당의 기관지인 당보를 빨리 발간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보는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옳게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보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제때에 광범히 선전하는 위력한 선전자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대중을 그 관철에 불러일으키는 믿음직한 조직자입니다. 당보를 발간하여야 당원들과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려 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당의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하였지만 북위 38도선 이남에는 제국주의국가 군대인 미군이 진주하였습니다. 미군은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규합하여 자기의 지반을 닦으려 하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진출을 각 방면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혁명가의 탈을 쓰고 제가끔 인민대중을 자기편에 끌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서 민주역량을 분열시키고 반동적 지반을 꾸리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동파들의 음모책동을 폭로분쇄하고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굳게 묶어세워 새 민주조선을 건설할 데 대한 당의 노선을 인민대중에게 충분히 알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들과 인민들은 당의 노선을 잘 알지 못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보를 빨리 창간하여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 주며 그들을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당보의 이름은 ≪정로≫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치정세에서 인민대중에게 당의 노선을 잘 알려 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인민대중에게 올바른 노선을 가르쳐 주고 그 길로 대중을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당보의 이름을 ≪정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갓 해방된 조건에서 당보를 발간하려면 난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에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출판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출판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가 항일혁명투쟁 시기의 혁명적 출판사업경험에 토대하여 조직사업을 잘한다면 당보를 발간하는 데서 제기되는 난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형편에서 당장 신문사를 따로 내올 만한 역량이 없는 것만큼 얼마동안 신문편집사업은 선전부가 책임지고 하며 글은 당중앙조직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각 부서 책임일군들이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신문발간사업의 토대가 마련되면 신문사도 따로 내오고 선전일군들 가운데서 우수한 동무들을 전임기자로 임명하여 글을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보를 처음에는 한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내고 신문사역량이 꾸려진 다음에는 매일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당보의 질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보는 창간호부터 내용있게 질적으로 편집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당보에는 당의 의도를 알기 쉽게 정확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원들과 인민들을 옳게 교양하여 건국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보에 당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거나 어려운 한문투가 많고 쓸데없이 긴 글만 싣는다면 당보가 자기의 조직선전자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보의 글은 짧으면서도 내용이 있고 인민대중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말로 쉽게 써야 하겠습니다.

당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전부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보의 글을 쓰고 편집을 하는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그것을 질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합니다.

당보를 내려면 인쇄설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신문을 내기 위한 준비에서 크게 걸리고 있는 것이 인쇄설비인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인쇄설비는 지금 있는 것을 보수정비하여 쓰면서 새로운 것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쇄공장건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3.1 월간≫

세기와 더불어 제5권

인류생활에 미치는 출판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어 과거의 온갖 세계는 몇개의 미개한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몇 권의 책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는 이미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출판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였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가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는 양심적인 지성인들과 시대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출판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출판물을 가리켜 대중의 교양자, 선전자, 조직자라고도 표현한다.

혁명적 출판물은 또한 수령과 당, 대중을 하나의 유대로 이어주는 훌륭한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레닌은 신문 ≪이스크라≫를 발간하면서 그 첫 호에 ≪한점의 불꽃에서 불길이 타오르라≫는 글발을 제사로 실었는데 이것은 전세계가 공명하는 금언으로 되었다. 이 제사 속에 나오는 불꽃은 그 후 10월의 불길이 되어 로씨야의 대지에 타번지었다.

나를 혁명의 길로 인도하는데서도 실상은 출판물이 큰 작용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의 명언 가운데는 검이 못하는 일을 붓이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새날≫과 ≪볼쉐위크≫와 ≪농우≫를 발간하면서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참맛을 보았으며 그 출판물들에 총이나 검에 못지 않은 기대를 걸었다.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하다.

우리가 백두산에 앉아서 ≪3.1 월간≫이나 ≪서광≫ 같은 출판물들을 통하여 조국을 잊지 말고 조국동포들을 잊지 말자고 호소하면 그 목소리를 남북만의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다 듣게 된다. 수백만 대중을 향해 동일한 사상과 투쟁구호를 일시에 신속히 선전하여 대중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출판물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선전선동수단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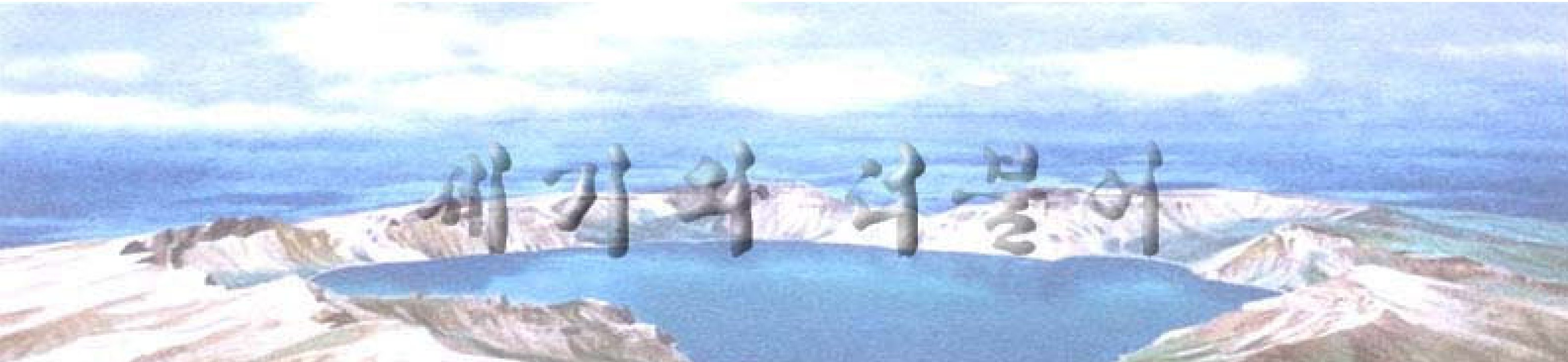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흔히 구두선전은 ≪입대포≫, 연예활동을 통한 선전은 ≪북대포≫, 출판물을 통한 선전은 ≪붓대포≫ 또는 ≪글대포≫라는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고는 하였다.

구두선전이나 연예활동에 의한 선전은 출판물선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빠르고 선동성이 강하지만 그대신 출판물을 통한 선전은 지속성이 있고 지역적인 제한성을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적들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국체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언동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가차없이 무찔러버리는 형편에서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선전활동은 부득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유격전쟁에 가장 적합한 선전선동수단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우리가 최상의 수단이라고 생각한 ≪붓대포≫를 발사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된 후 거기에 출판소를 꾸리고 조국광복회 기관지인 ≪3.1 월간≫을 창간하였다.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 우리는 그 기관지의 발행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이라는 큰 그릇에 각계각층의 민중을 다 담아가지고 항일대전을 거족적인 경지에로 끌어올리자면 ≪입대포≫나 ≪북대포≫도 잘 써먹어야 하지만 특히 ≪붓대포≫가 은을 내게 해야 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민족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정치공작은 다분히 지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우리의 통일전선공작판도는 주로 만주지방과 조선의 북부지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국광복회는 그 판도를 조선전역과 중국본토, 일본, 쏘련, 미국을 비롯



하여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은 해외의 모든 곳에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깃발을 날리려고 하였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지에 공작원들을 자주 파견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공작원들의 수효는 제한되어 있었다. 유격투쟁의 초기부터 동만에서 통일전선운동을 많이 해본 군정간부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북만에 떼두고 오다나니 일군들이 부족하였다.

일군의 부족에서 오는 공간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도가 바로 출판물에 있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기관지를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뿌리면 그 한부한부의 잡지나 신문이 곧 한명한명의 공작원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하여 기관지를 제때에 내오지 못하였다. 그 당시는 싸움도 많았고 유동도 심했다. 우리는 언제나 적의 사면포위 속에 있었다. 등짐을 지고 하루에도 수십수백리를 걸어야 했다. 적들은 우리에게 출판물을 발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백두산에 밀영이 창설되고 그 밀영에 출판소가 꾸려지게 된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조국광복회 기관지 ≪3.1 월간≫을 가질 수 있었다. ≪3.1 월간≫은 2천만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조국광복회의 이념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담은 대중정치이론잡지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의 사명에 알맞는 제호를 고르려고 애를 쓰다가 ≪3.1 월간≫이라는 네 글자를 찾아냈다.

≪3.1≫은 3.1 반일인민봉기를 의미하였다. 3.1 인민봉기는 일제침략자들에게 거족적으로 대항해 나선 조선사람들의 장엄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므로 ≪3.1 월간≫이라는 제호는 민족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거기에는 우리가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고수하고 백두산을 타고앉아 전조선적인 판도에로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전략적 의도와 함께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전민항쟁을 마련해간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3.1 월간≫은 조국광복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도 띠고 있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잡지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잡지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나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아니라 민족부르조아지나 종교인들, 독립군 병사들까지 다 읽고 사랑하는 범민족적인 잡지로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비서처 성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3.1 월간≫ 편집부를 꾸리고 주필로 기자경력을 가진 이동백을 임명하였다.

이동백의 주관하에 편집성원들은 창간호 발간준비를 본격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들은 잡지의 편집방향과 출판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논의를 많이 하였다. 이상적인 편집형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국내출판물들에 대한 연구도 진지하게 하였다.

그 당시 국내출판계에서는 신문과 잡지들의 폐간, 정간 바람이 사납게 불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애국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잡지들은 무조건 탄압을 당하고 폐간되어 사실 참고로 삼을만한 잡지라고는 몇 종 되지 않았다.

≪3.1 월간≫ 편집성원들은 참고적으로 국내잡지들을 들춰보았지만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거나 본따려고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창발적으로 새롭게 탐구하였다.

우리는 ≪3.1 월간≫을 대중정치이론잡지형식을 갖추게 하고 애국애족과 민족대단합에 관한 사상으로 그 내용을 일관시키기로 하였다. 매호에 사론설을 주는 외에 ≪우리 민족 조국광복운동의 새 소식≫, ≪반일민족혁명전선 각지 승리소식≫, ≪문답란≫, ≪조국요문≫, ≪국제요문≫, ≪문예란≫ 등 고정란들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비서처가 속해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안의 필진들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지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통하여 수집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만, 남만, 북만의 주요지점들에 ≪3.1 월간≫잡지의 특파원들을 두었으며 광범한 독자들의 투고를 장려하였다.

어떻게 하면 ≪3.1 월간≫ 편집사업을 독자대중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는가, 어떻게 하면 각계각층의 독자들이 잡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원고를 제공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독자들이 편집내용을 풍부히 하고 편집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보내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모색하던 끝에 이동백은 투고규정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다.

그가 만든 투고규정을 읽어보니 구미가 동하였다. 그 규정을 읽으면 글재간이 둔한 사람도 붓을 들고 그 무엇인가를 일사천리로 쓰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있었다. 그 규정의 앞머리에는 각계 애국지사의 명론탁설을 수집하기 위하여 투고를 환영한다는 청탁문이 실려있었고 그 뒤로는 원고내용에 따르는 글자의 수와 투고방법, 열성투고자에 대한 우대적용 등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조직선을 통해 그 규정을 내려보내고 창간호에도 ≪투고환영!≫이라는 제목을 달고 소개하였다.

투고규정을 내려보낸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원고들이 많이 날아들어왔다. 그 원고들을 받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던 ≪대통영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도 투고된 형형색색의 글들을 기쁜 마음으로 거의다 읽어보았다.

양세봉독립군의 참모장이 보내온 축하편지에도 조국광복회 창립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들의 심정이 절절하게 반영되어 있었지만 남만에서 조국광복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이동광과 상해에 거주하고 있던 박아무개 교포대표와의 상봉소식을 적어보낸 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상해교포대표는 북경, 천진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곳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조국광복회 창립소식을 듣고 남만에까지 찾아와서 국내외에서 조국광복회를 축으로 통일적인 전선을 전개할 데 대한 건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조국광복회 조직을 중국본토의 광활한 지역에 뻗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우리는 그 원고를 받자 곧 유능한 정치일군 한 사람을 이동광에게 파견하였다.

이처럼 ≪3.1 월간≫의 발간준비과정에 편집부는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통신처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였다.

조국광복회의 한 구위원회가 인민혁명군을 고무하기 위하여 축기를 준비하면서 보내온 편지도 역시 감동적인 사연으로 엮어져 있었다.

≪ … 애국동포들의 열렬한 동정에 의하여 자기의 빈약한 호주머니에서 1전, 2전 혹 은 1원씩을 거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모은 총액은 8원 71전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군수품을 사서 보내려고 하여도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우리들과 전체 애국동포들의 의견에 의하여 환영기를 만들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는 성의껏 보내온 그 편지들을 모두 창간호 지면에 싣게 하였다.

창간준비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던 원고들이 예상외로 넉넉히 마련되자 ≪대통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돌아갔다. 하루는 그가 사령부에 나타나 싱글벙글하면서 내앞에 여라문장의 백지를 불쑥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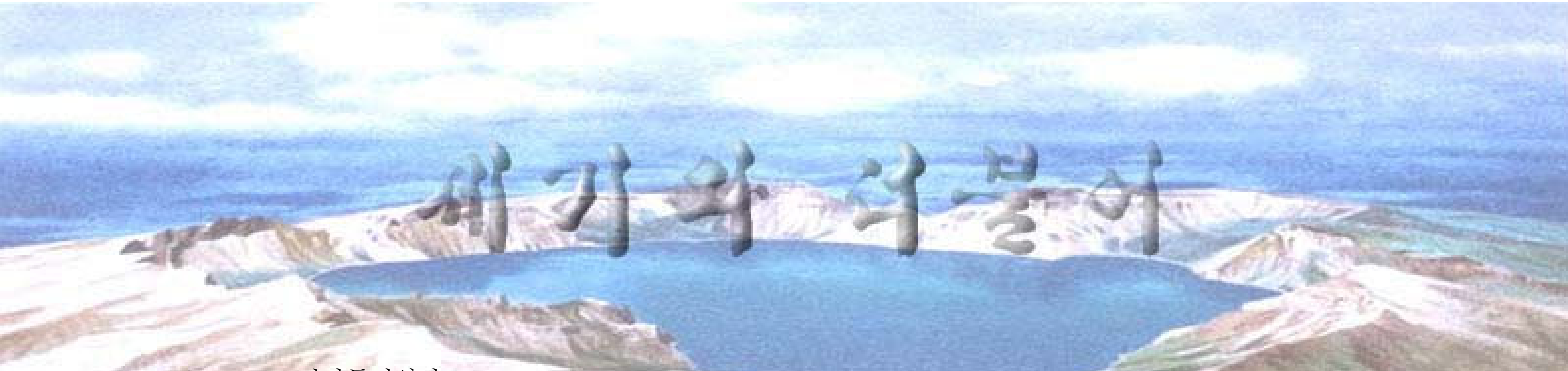
≪다른 원고밑천은 든든합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창간사와 논설만 있으면 편성에 들어가겠는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조국광복회 회장동지가 써줘야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주필은 무얼 하겠습니까. 문장가로 소문난 주필선생이 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제가 밀어제끼고 그 자리를 가로타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간사야 응당 주필선생이 맡으셔야지요.≫

나는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수난의 길을 걸어온 그 성실한 문필가에게 창간사를 맡기어 가슴에 쌓였던 망국의 설움을 마음껏 터치고 2천만 겨레를 향하여 내뿜고싶었던 불같은 말들을 실컷 외치게 해주고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기어이 창간사를 떠맡기었다.

그대신 나는 ≪3.1 운동의 회고≫라는 제목의 논설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바쁜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원고를 제때에 써주지 못하였다. 어쩌다 짬을 내어 집필을 시작하던 때에 공교롭게도 밀정을 잡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적 ≪토벌대≫가 우리 밀영쪽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통보가 들어와서 전장으로 출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 내가 제일 그리웠던 것은 김혁과 최일천이었다. 카륜과 오가자 시절의 막역지우들이었던 ≪볼쉐위크≫의 주필 김혁과 ≪농우≫의 주필 최일천은 쌍벽을 이루는 재능있는 문



장가들이었다.

시인인 김혁의 글이 범람하는 장강처럼 호방하고 격동적이었다면 최일천의 글은 민족적인 색채가 짙으면서도 지성도가 높고 분석이 예리하였다. 김혁은 ≪볼쉐위크≫에 자기가 순수 작사, 작곡한 혁명적인 노래들도 이따금 편집해넣곤 하였다. ≪볼쉐위크≫에 내보낸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자본주의사회 저주가≫와 ≪반파벌가≫이다.

≪자본주의사회 저주가≫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착취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노래였고 ≪반파벌가≫는 감자도장이나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등에 업혀 당을 창건하려고 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정체를 예리하게 발가놓은 풍자가요였다.

김혁이나 최일천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대통영감≫의 부담을 적지 않게 덜어주었을 것이다.

나는 3.1 운동에 대한 회고논설도 조국광복회 창립문건도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대본들처럼 적들과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짬시간을 내어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3.1 월간≫ 창간호 발간준비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출판기자재의 구입이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낡은 등사기 한대밖에 없었다. 등사잉크도 로라도 등사원지도 종이도 다 부족하였다. 출판소의 일군들은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였다. 등사잉크가 떨어지면 양철로 고깔을 해씌우고 봊나무껍질을 태우면서 고깔에 붙은 그을음을 긁어모았다. 그 그을음을 기름에 재웠다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등사잉크와 섞어 사용하였다. 로라가 못쓰게 될 때에는 아교에 송진을 섞어서 끓여가지고 형틀에 부어 만들어냈고 강필이 못쓰게 되면 돗바늘을 가지고 만들어 썼다.

≪3.1 월간≫을 위해 바친 그들의 피어린 노력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표본으로 내세울만한 것이었다.

그 노력은 마침내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 1936년 12월 1일 ≪3.1 월간≫ 창간호가 마침내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그 날 ≪대통영감≫은 맨처음으로 제책된 창간호 한부를 들고 와서 말하였다.

≪덧없이 흘러간 나의 한생에서 그래도 값있는 일을 한 것이 있다면 ≪3.1 월간≫ 창간 호를 만든 것입니다. 장군님, 바쁘시더라도 ≪3.1 월간≫의 고고지성을 한 번 들어봐주십시오.≫

그는 격정에 넘쳐 창간사의 첫 대목을 읽었다.

≪우리 조선이 강도왜놈들에게 강점되어 2천 3백만 백의민족이 일제의 망국노예로 된 후 우리들의 생명과 인권은 개나 돼지만큼도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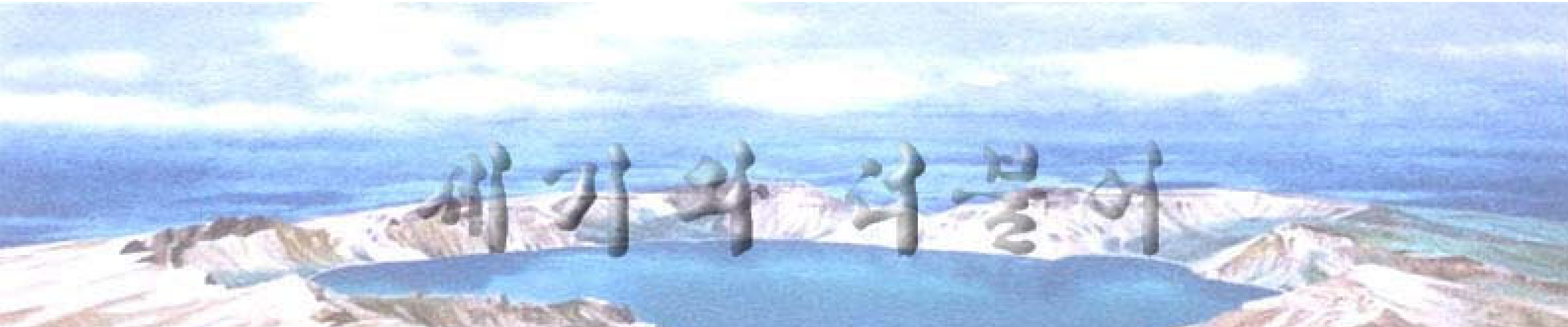
≪3.1 월간≫은 발행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창간호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반영이 대단하였다. 각 지방의 조국광복회 조직들에서는 ≪3.1 월간≫의 발행을 축하하는 환영인사와 함께 배포부수를 늘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편지들을 보내왔다. 조직의 명의로 다음호의 잡지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3.1 월간≫ 발행에 필요한 출판기자재 명세를 작성해가지고 그 해결방도를 한창 모색하고 있을 때 박달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성능좋은 새 등사기 2대를 해결하였다. 단천역에 도착한 등사기를 각각 한 대씩 감자포대 안에 넣어가지고 달구지로 갑산까지 운반하였는데 경찰의 감시가 심해서 산속에 종일 숨어있다가 밤이 깊어서야 민족해방동맹 출판부가 자리잡고 있던 오풍동에 가져갔다고 한다.

박달은 처음에 그 등사기를 다 우리 밀영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 대만 우리가 쓰고 한 대는 갑산에 떨구어 조선민족해방동맹 기관지를 발간하게 하였다. 조선민족해방동맹에서는 ≪화전민≫이라는 제호로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었다.

박달이네가 구해보낸 등사기의 성능이 아주 좋았다. 낡은 등사기를 사용할 때보다 능률이 몇배나 높아 다음호부터는 잡지를 수백부씩 밀어냈다.

≪3.1 월간≫의 인기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였다. 독자들이 이 잡지를 애독한 것은 편집형식이 참신한 데도 있었지만 주로는 그 내용이 민족통일전선의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잡지가 민족 앞에 나선 시대적 과제를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



게 반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파쑈적 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묶어세워 전민항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3.1 월간≫이 발간되면서부터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인민혁명군 참군자들의 대열과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열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한두방의 ≪붓대포≫가 이렇게도 큰 힘을 내는가 하고 그 ≪붓대포≫의 임자들조차도 놀랄 지경이었다.

박인진은 언제인가 권영벽을 만난 자리에서 영북의 거의 모든 천도교인들을 단시일내에 조국광복회 조직망에 망라시키는데서는 ≪3.1 월간≫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3.1 월간≫을 만들어내는데서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공로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동백이다.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때에도 그의 수고가 적지 않았지만 ≪3.1 월간≫의 창간과 발행에 바친 그의 수고에는 비길 바가 못된다. 그는 인생말년을 완전히 ≪3.1 월간≫과 함께 살았다.

나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대통영감≫만큼 종이를 아껴쓰는 사람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나뭇잎사귀만한 종이도 다 건사해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글씨를 깨알같이 박아가며 아주 요긴하게 쓰고는 하였다. ≪대통영감≫은 글을 쓸 수 있는 백지에 담배를 말아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종이를 아낄 줄 모른다고 호되게 비판하였다. 그 자신은 늘 대통으로 담배를 피우곤 하였다. 그가 대통에 담배를 담아 피우게 된 동기도 종이를 아끼려는데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사연은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 대통이 이동백으로 하여금 퍼그나 많은 종이를 절약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만일 그 대통이 없었더라면 그는 일생동안 수천매에 달하는 종이를 소비하였을 것이다.

조국이 해방되면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사를 써야겠다고 하면서 단 하루도 번지지 않고 일기를 썼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배낭 속에 정히 간수하던 ≪3.1 월간≫ 주필 이동백은 양목정자 밀영에서 적 ≪토벌대≫의 불의습격을 받고 희생되었다. 적들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노약자들과 함께 ≪대통영감≫을 사살하고 밀영에 불을 질렀다. ≪대통영감≫이 귀중히 여기며 고이 보관해왔던 많은 문건들과 사진자료들, 일기책들이 그때 그의 육신과 함께 불타서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가 독립된 조국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여겨오던 그 역사자료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재가되어 날아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통분함을 금할 수 없다. 그 큼직한 보따리들 속에서 그가 쓴 일기책들만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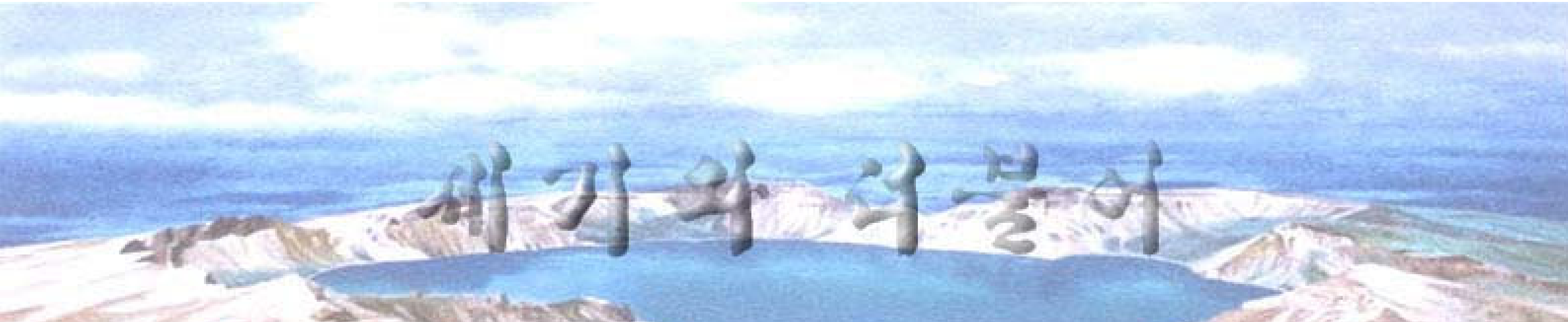
훗날 양목정자 밀영에 갔을 때 나는 불탄 초막자리에서 그의 유골을 찾아 손수 안장해주었다. 생전에 이동백이 그처럼 애용하던 대통만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재가되어서 이 세상에 그의 유물로 남겨둘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은 것은 그 걸출한 늙은 인테리혁명가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감회깊은 추억뿐이었다. 그런데 몇해전에 백두산밀영이 발굴되면서 그의 필적으로 된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었다. 나는 마치 살아있는 ≪3.1 월간≫의 주필을 만나보는 것 같아 그 구호나무앞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이동백은 항일혁명시기에 내가 만나본 모든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양심적이고 혁명적이며 박식한 인테리의 한 사람이었다.

각이한 나라들에서 각이한 시대에 산 인테리의 선진적 대표자들은 사회 혁명과 개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근대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혁명운동발전에서 인테리들이 논 역할이 매우 크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헌신하였다.

이동백도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20년대에 우리 나라 인테리들이 결



을 수 있었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길을 걸어 항일무장투쟁대오에까지 들어선 혁명적 인테리의 대표자였다.

이동백은 우유부단하고 동요하던 인테리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무력항쟁에 복무하는 진짜배기 혁명적 인테리로 된 사람이었다.

백두산 시절의 대내출판일군들 중에서 이동백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문필가는 국내의 적색농조에서 활동하다가 박달과 이제순의 줄을 타고 우리 부대에 입대한 김영국이다.

그는 군인으로서는 ≪갑≫의 계열에 속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으나 문필능력으로 보면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재간둥이였다. 그가 강필글을 쓴 것을 보고서는 기계로 찍어낸 것 같다고 하면서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는 하였다. 하루저녁사이에 원지 여라문장씩 써내면서도 글체가 활자처럼 일매져 ≪대통영감≫한테서 늘 칭찬을 받았다.

흠이라면 자유주의가 있고 건망증이 심한 것이었다. 얼마나 건망증이 심하였던지 언제인가는 휴식장소에 총을 놓아둔 채 거의 20리나 걸어가서야 ≪아뿔싸, 내 총!≫하고 허둥거리며 되돌아간 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단단히 비판도 받고 처벌도 받았다.

≪총은 동무의 생명이나 다름없는데 제 목숨까지 떼두고 떠나는 그런 얼떨떨한 정신을 가지고 글은 어떻게 짓소?≫

처벌이 해제된 다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김영국은 뒤더수기를 긁으면서 비위좋게 ≪세계적인 문호들은 거의 다 건망증이 많았습니다≫하고 대답해서 나도 ≪대통영감≫도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열정적인 문학도였던 김영국은 짬만 있으면 시나 소설작품을 창작하고는 하였다. 우리가 1937년에 대내기관지로서 발간한 신문이었던 ≪서광≫의 지면에는 그의 작품들이 여러편 실리었다.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되는 것은 ≪서광≫의 창간호에 ≪남의 집 남편은 혁명군에 갔는데 우리 집 남편은 자위단에 갔다≫는 구절이 들어있는 네댓편짜리 가사가 게재되었던 사실이다. 김영국은 그 가사를 발표하면서 ≪아리랑≫곡조에 맞춰 부르라는 설명까지 달아놓았다. ≪서광≫의 2, 3, 4호에는 그의 단편소설이 연재되었다. 그는 ≪서광≫의 주필이었다. 그 젊고 재능있는 문필가는 1938년 가을에 김주현과 함께 허약자들과 부상병들을 위해주려고 산청을 털다가 적 ≪토벌대≫의 저격을 받아 그만 아깝게도 너무나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났다.

주간정치신문인 ≪서광≫에는 유격대원들을 위한 정치군사학습자료들도 많이 실리었다. 내가 집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도 ≪서광≫에 발표되었다.

≪서광≫의 열성필자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낸 또 하나의 인물은 임춘추였다. 그는 김영국을 도와 ≪서광≫의 편집과 발간에 적극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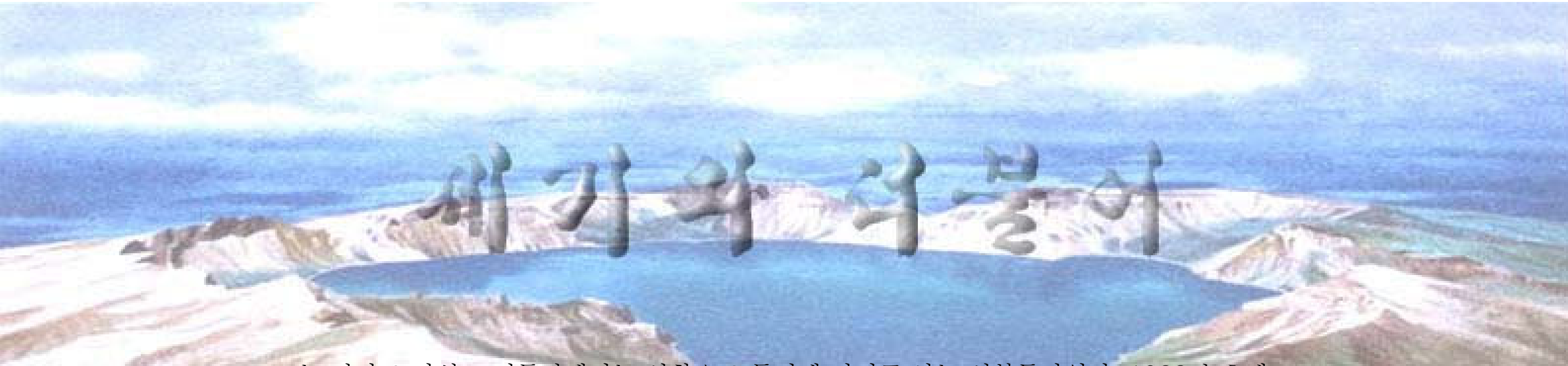
≪종소리≫는 마당거우 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시작하면서 발간한 대내주간신문이었는데 군정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군사학습자료들과 교양자료들을 주로 싣곤 하였다.

≪종소리≫의 주필사업은 최경화가 담당하였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어려운 신문발간사업을 능숙하게 주관하였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은 비결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섭취한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경화는 고향에 있을 때 자습으로 대학입문서들을 독파하였다.

그가 하는 말은 하루종일 들어도 싫지 않았다. 독자들이 하품을 하면서 읽는 늑거리 통속소설도 일단 그의 입만 거치면 일류급의 명작으로 되곤 하였다. 말재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기였고 재산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선동연설을 많이 시키었다. 인민들이 그의 연설만 들으면 홀딱 반하였다.

최경화는 고향에 있을 때 청년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다가 적들의 추적을 피하여 장백으로 망명해온 사람이었다. 장백에 와서는 서당훈장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계몽에 몰두하였다. 물론 조국광복회 조직에도 인차 가입하였다. 그는 권영벽의 공작선과 연계를 가지면서부터 17도구 당지부 조직부 책임자로, 성진(김책시) 방면 정치공작원으로 되었는데 순간적인 실수로 지하사업을 더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가 입대하자 여대원들은 미남자가 왔다고 수근거리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생김새보다 재능과 인품에 더 마음이 끌리었다. 최경화는 글재주도 뛰어나고 그림도 썩 잘 그리는 보기드문 재사였다. ≪종소리≫의 삽화는 대부분 그가 직접 그려넣은 것이었다. 정치상학시간에



는 강사로 나섰고 전투장에서는 선참으로 돌격에 나서곤 하는 선봉투사였다. 1933년 초에 있은 정안툰전투때에도 최경화는 자진해서 돌격조에 망라되어 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하였다. 그러다가 치명상을 입고 최후를 마치었다.

최경화와 같은 훌륭한 전우를 잃은 것이 너무도 애석하여 나는 그가 전사한 날 밤새껏 눈물을 흘리면서 추도사를 썼다. 우리는 혹한 속에서 그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대내의 반일청년동맹 기관지였던 ≪철혈≫은 1939년 말의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발간된 속보형식의 주간신문이었다. 이동백, 김영국, 최경화와 같은 쟁쟁한 필진들이 이미 다 우리 곁을 떠난 뒤여서 출판물의 편집과 발행은 초학도들에게 떠맡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요령을 배워주며 일을 시켜갈 셈치고 사령부 당지부사업과 청년동맹사업을 겸해서 맡아보던 강위룡에게 ≪철혈≫발간을 위임하였다. 처음에 강위룡은 두손을 내저으며 그런 일만은 못하겠으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하였다. 우리가 강권을 해서야 그는 마지못해 분공을 받아들이었는데 대중의 도움을 받아가며 결국은 별 손색없이 신문을 만들어내고는 하였다.

≪철혈≫도 ≪3.1 월간≫이나 ≪서광≫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자료들을 편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철혈≫ 첫호에 실린 이을설에 대한 소개기사와 날창만으로 적의 신식 체스꼬제 기관총을 노획한 한 신입대원의 전투담은 그런 긍정자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석탄밀영에서 군정학습을 끝낼 무렵에 우리는 청년들의 용감성과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전투에서 무훈을 세운 청년들에게 영예의 붉은띠를 수여하는 제도를 새로 제정하였다. 띠를 수여받은 대원은 명절날이나 부대가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 경사로운 날에 그것을 군복위에 띠고 지내도록 하였다.

군정학습총화를 계기로 발간한 ≪철혈≫ 특간호에는 학습총화에 대한 기사들과 아울러 새로운 표창제도의 제정소식 같은 것도 실어줌으로써 구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혁명적 출판물들은 독자대중의 훌륭한 선전자, 교양자로 되었을 뿐 아니라 영웅적 위훈의 고무자로 되고 투쟁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되었으며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었다.

≪3.1 월간≫을 비롯한 항일혁명시기의 우리 출판물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몇몇 인재들의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독자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집필, 편집, 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출판물을 만드는데서도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에 의거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우리 부대가 남패자에 머물러있을 때였다고 생각된다.

어느날 밀영을 거닐던 나는 한 여대원이 숲속에 홀로 앉아 공책에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골똘했던지 그는 인적기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혀끝으로 연필심만 적시며 그 심끝에서 탁수방울처럼 힘들게 떨어지는 글에만 음해있었다. 무슨 글을 쓰는가고 물었더니 농촌에 나가서 침투할 선전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글을 읽어보고 몹시 놀랐다. 소학교 중퇴생의 글치고는 매우 활달하고 세련된 글이었기 때문이었다. ≪재만조선 청년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된 그 글은 씨가 있고 주장이 뚜렷하였다. 그래서 그 글을 약간 수정가필하여 ≪3.1 월간≫에 실어주었다. 독자들이 그 잡지를 읽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이처럼 소학교조차 변변히 다녀보지 못한 평범한 작식대원들도 우리 출판물의 필자로 되었다.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지에 의해서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3.1 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과 같은 출판물들을 발간해낼 수 있었으며 혁명적 출판물 전통의 튼튼한 뿌리를 마련해놓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에게 최고상으로 ≪3.1 월간상≫을 수여하는 표창제도가 제정되어 있다. 이동백이 살아있었더라면 제1호 ≪3.1 월간상≫은 그에게 수여되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메달 하나 달아보지 못하고 돌아간 혁명적 출판계의 제1세들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3.1 월간≫

역사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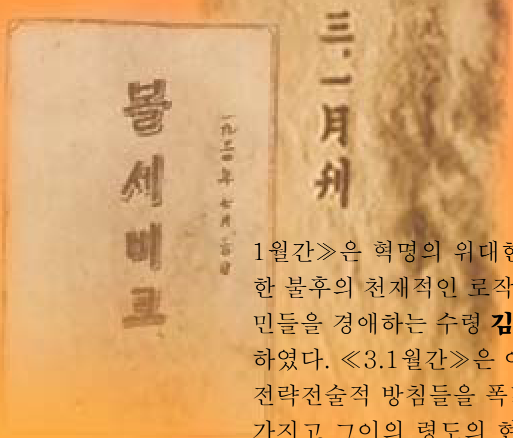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간하신 조국광복회기관지. 1936년 12월 1일에 창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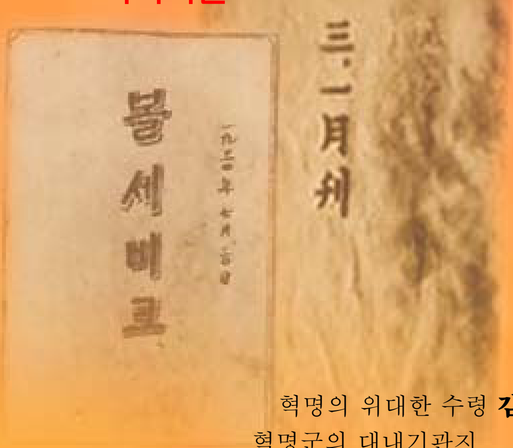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초기부터 혁명적출판물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각종 혁명적출판물들을 수많이 발간하기여 그것이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가 철저히 선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한 귀중한 경험과 확고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혁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신후 이 방침을 실현하는 방도의 하나로서 일련의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할 것을 계획하시고 남호두로부터 압록강 연안국경일대에로 나오시는 간고한 행군의 나날에도 줄곧 그 준비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조국광복회기관지로서 월간잡지 ≪3.1월간≫을 창간하시였다. ≪3.1월간≫은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맑스-레닌주의적혁명적정치리론잡지였다. ≪3.1월간≫창간사에서는 ≪우리 독립전선의 승리적진전을 원하는 절전한 요구에 의하여 ≪3.1월간≫은 조국광복회가관지로서 우리 독립전선에 직접 출전하는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3.1월간≫이 창간됨으로써 조선혁명과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철저하게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출판물을 가지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절전한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1월간≫을 직접 창간하기였을뿐아니라 그것이 혁명투쟁에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3.1월간≫발간의 명확한 방향과 과업을 가르쳐주시였다며 그 내용을 직접 검토하기고 편집형식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하시였다. 그리고 ≪3.1월간≫에 실을 수많은 글들을 손수쓰시였다. 그뿐아니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령도하기는 그 바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 발간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보장하는 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출판사업을 담당수행하는 일군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발간된 ≪3.1월간≫은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1월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전면적으로 해설선전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3.





1월간≫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집필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불후의 천재적인 로작들과 그 해설론문들을 체계적으로 실음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3.1월간≫은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였으며 생동한 사실과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에 대하여 선전하였다. 특히 ≪3.1월간≫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교조주의, 민족배타주의 등 온갖 그릇된 사상조류들과 비타협적으로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그이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대렬을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아니라 ≪3.1월간≫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1월간≫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계통적으로 소개선전하였다. 그리고 ≪3.1월간≫은 금은보화로 가득차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졌으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우리 인민의 투쟁으로 빛나는 조국에 대하여 해설선전하면서 이러한 우리조국이 일제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며 민족적 수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싸운다면 능히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3.1월간≫은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1월간≫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력사적으로 폭로하면서 제국주의 특히 일본제죽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3.1월간≫은 창간호에서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후 감행한 온갖 략탈과 학살 만행을 단죄하면서 ≪우리들의 장래는 오직 하나의 살길만이 있다. 즉 민족의 총동원하여 강도 왜놈들과 혈전하여 조선독립을 완성하는데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3.1운동 실패의 원인≫, ≪독립군의 실패원인≫, ≪광주학생사건의 교훈≫과 같은 론설들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이전시기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격대원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잡고 일어나싸울 때만이 일제를 타승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도록 하였다. ≪3.1월간≫은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배포되여 집단적 선전자,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렇듯 ≪3.1월간≫은 그가 수행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역할로 하여 조선혁명발전과 우리 나라 출판물발전력사에서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3.1월간≫은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와 당창건의 조직 사상적준비를 보장하며 반일민족통일전선과 반제공동전선을 확대발전시키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수많이 발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당적출판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이 전통은 오늘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에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여 그 전투력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뿐아니라≪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은 린접국가의 혁명운동과 혁명적출판물의 발전에도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줌으로써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서광≫

역사사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발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기관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초기부터 혁명적출판물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각종 혁명적출판물들을 수많이 발간하시여 그것이 혁며투쟁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어려운 정황에서도 손수 전투적인 혁명적출판물을 만들어내기에 힘쓰시였으며 1937년 5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정치신문인 ≪서광≫을 창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서광≫의 내용과 편집형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주체가 철저히 선 혁명적인 신문으로 되게 이끌어주시는 한편 ≪서광≫에 실을 중요한 글들을 손수 수많이 쓰시였다. 그 뿐아니라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조건에서도 ≪서광≫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기위한 기자재들을 보장하는 사업에 항상 깊은 주의를 돌려주시였으며 출판사업을 담당수행하는 일군들의 생활에 대하여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신문 ≪서광≫은 1937년 11월 10일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피어린 싸움의 나날에 몸소 투쟁의 불길속에서 구상하시고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실었다. 또한 ≪서광≫은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조선에서의 만일민족통일전선문제, 국제반파쑈인민전선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조선혁명의 전도와 그 승리를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문제, 조선혁명의 성격과 동력, 장차 수립될 조선인민혁명정부의 성격, 로농동맹에 대한 문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조국광복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한 그이의 수많은 로작들과 그 해설론문들을 체계적으로 실었다. 또한 ≪서광≫은 조선인민의 절박한 생활적요구와 투쟁구호를 제기한 지방통신기사, 그리고 매 시기 인민들과 혁명조직들 앞에 나선 투쟁과업들을 실었다. ≪서광≫은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조건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내의 교양망과 혁명조직들의 조직망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 속에 널리 배포되였다. 이리하여 신문 ≪서광≫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석선전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신문≪서광≫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에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여 그 전투력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출판보도 건설에서 이룩하신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로동신문≫ 1996년 12월 1일 사설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혁명적 출판물 ≪3.1월간≫을 창간하신 6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과 기자, 언론인들은 일찍이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적 출판보도물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3.1월간≫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원형이며 본보기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3.1월간≫을 창간하신 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와 우리 당 출판보도건설역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창시하시고 몸소 혁명적 출판물의 원형을 창조하심으로써 출판물 력사에서와 혁명적 출판보도리론발전에서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출판보도건설은 수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승리적 전진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신문 ≪새날≫, 잡지 ≪볼쉐위크≫를 비롯한 혁명적 출판물들을 창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데 이어 그 해 12월 1일 조국광복회관지 ≪3.1월간≫을 창간하시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3.1월간≫의 창건으로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3.1월간≫이 창간됨으로써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적 출판보도건설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3.1월간≫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 출판보도물들이 창간발행되는 행정에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귀중한 전통이 마련되였다.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과 리론, 혁명적 출판물건설의 고귀한 경험과 항일유격대식 기풍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는 이 빛나는 전통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만년초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해방후 당보 ≪로동신문≫을 비롯한 새형의 주체적 출판보도물들을 수많이 창간하시고 위력하고 존엄있는 출판보도물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의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들은 주체가 철저히 서고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위업수행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대중의 친근한 교양자, 강위력한 선전선동수단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이 강화발전되여온 시련에 찬 길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고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성장하여온 영광넘친 길에도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출판보도물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출판보도물로 영광떨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출판보도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 출판보도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출판보도건설에서 이룩하신 커다란 공적의 하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하여 주신 것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 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방침, 출판보도활동에서 주체의 원칙과 당적,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방침,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 전반적인 출판보도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방침 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제시하신 주체적인 출판보도 리론과 방침들은 우리의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들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무기로 되고 있다. 이 올바른 사상리론적지침이 있음으로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해나갈수 있는 것이다.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을 지피시여 우리의 신문과 통신, 방송을 비롯한 모든 출판보도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께서 주체의 출판보도건설에 쌓아올리신 또 하나의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오래동안 출판보도분야에 남아있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마사지고 출판보도물의 보도성과 정론성, 전투성과 호소성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출판보도물은 서상정신적 내용이 건전하고 혁명적 이며 그 형식과 방법이 다양하고 참신하며 인민대중의 절박한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랑을 받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출판보도혁명을 이끄시는 나날에 혁명성이 강하고 능력있는 기자, 언론인들의 대부대를 키우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속에서 자라난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정치사상적 풍모는 매우 훌륭하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의 황색선전이 전례없이 로골화된 시기에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상적 총대로 당과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보위했으며 오늘도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출판보도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당의 구상이 펼쳐지는 곳마다에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숨결이 맥박치고 기자, 언론인들이 활동하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있다.

언제나 당과 뜻을 같이하고 사회주의 사상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있는 혁명적 인 기자, 언론인들이 부대를 키우신 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는 우리 시대 혁명적 출판언론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받고 계신다.

오늘 우리앞에는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적 출판보도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출판보도건설에서 이룩한 당과 수령의 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출판보도건설의 력사는 수령이 이룩한 전통을 튼튼히 고수하지 못할 때 권위있는 출판보도물도 빛을 잃고 회색화, 황색화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룩하여 오신 주체적 출판보도건설의 전통을 귀중한 재보로, 만능의 지침으로 여기고 모든 출판보도활동을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당 출판보도사업을 진두에서 이끌어 오시는 나날에 세워주신 사업 체계와 원칙, 사업방법대로 일하며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출판보도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위해나가며 우리 당의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로서의 영예로운 칭호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난관극복의 정신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보도선전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필연성,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원리적으로, 생동한 현실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사회주의 지키면 승리하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사업을 심도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팀없는 신념이 전당과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의 당적 출판보도물은 또한 전당, 전군, 전민이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다. 기자, 언론인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기풍이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보도선전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구호밑에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기사, 편집물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

당적출판보도물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며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시기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선전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혁명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혁신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더 많이 배출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들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관철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언론전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당적출판보도물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은 그 직접적 담당자인 기자, 언론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 언론인들은 항일유격대의 출판일군들이 등사기와 종이를 메고다니면서 간고한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서도 글을 쓰고 출판물을 발행하였던 그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혁신이 나래치는 공장과 건설장, 농어장에 찾아가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취재집필활동을 벌려야 한다. 기자, 언론인들을 사색하고 또 사색하고 뛰고 또 뛰면서 훌륭한 문제작들을 더 많이 써냄으로써 사회주의사상전선의 앞장에 내세워준 우리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기자, 언론인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며 당의 출판보도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 줘야한다.

모든 기자, 언론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출판보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 총진군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붓대는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

로동신문 창간기념일 맞으며 론설

(평양 1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 창간기념일(11월 1일)을 맞으며 ≪로동신문≫ 1일부는 붓대는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라고 강조한 론설을 실었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의 나날에 몸소 ≪새날≫, ≪3.1월간≫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출판보도물들을 창간하시였으며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기초하여 광복후 당보 ≪로동신문≫을 비롯한 당출판보도물들을 창간하시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오시였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당출판보도물이 걸어 온 로정에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출판보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오시였으며 특히 우리 혁명이 일대 전환기에 들어 서던 1970년대 초부터 당보를 비롯한 당출판보도물들에 대한 지도를 더욱 심화시키시여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 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나는 총대와 함께 붓대를 중시합니다.≫

라고 지적하시였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틀어 잡은 붓대의 기본사명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관심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닌 견결한 투사들로 자라났다. 붓대를 단순한 필봉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사상적총대로 여기고 그이의 사상리론과 로선, 권위와 업적을 결사옹호보위해 나가고 있는것이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자랑스러운 풍모이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이 틀어 쥐고 나가는 지침도 위대한 장군님의 출판보도사상 리론이며 새 세기의 진군길에서 드팀없이 계승해 나가는 전통도 그이께서 이룩하신 출판보도혁명의 전통과 업적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이런 충직한 기자, 언론인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출판보도물로서의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혁명적성격이 굳건히 고수되고 우리의 사회주의사상진지가 끄떡없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철통같이 다져 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신문독보회

≪로동신문≫ 당의 붓대중시사상을 구현할데 대해 강조

2만호발행 기념사설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1일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 2만호가 발행되는 날을 맞으며 발표한 사설에서 당의 붓대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적극 추동하자고 기자, 언론인들에게 호소하였다.

사설은 1945년 11월 1일 ≪로동신문≫이 창간됨으로써 수령의 위업을 견결히 옹호보위해 나가는 위력한 사상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붓대중시사상은 모든것이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할 때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출판보도사업을 사상사업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언론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 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이다.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의 힘에 한계가 없는것처럼 혁명의 붓대가 발휘하는 사상적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로동신문≫이 걸어 온 로정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긍지높이 기록하여 온 수령숭배, 수령옹위의 력사이다.

≪로동신문≫이 창간된 때로부터 2만호에 이르는 기간 사회주의집권당의 기관지로서의 전투적위력을 힘 있게 떨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총대와 함께 붓대를 사랑하시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최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서한 ≪기자, 언론인들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사상적기수이다≫를 받아 안게 됨으로써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붓대의 위력을 더 높이 더 자랑스럽게 떨칠수 있는 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사설은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서한을 받들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며 온 나라에 강성부흥의 북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한 출판보도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노동신문사

≪청맥≫의 탄생

통일혁명당

혁명은 대중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께서 교시하신 혁명의 진리이다. 그렇다면 항해를 시작하는 통일혁명당에 있어 제일의 과제는 무엇인가! 창당조직위원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거듭하였다.

당의 임시강령과 행동목표를 선전하고 통일혁명당 조직의 존재를 내외에 알리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에게 한국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올바르게 꿰뚫어 보는 눈과 귀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나서 그들을 당의 주위에 결집시키고 그위에 통일혁명을 위한 강력한 하나의 역량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강력한 선전수단에 의해서만 이 중대한 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한국과 같은 반공국시의 체제에서 이와 같은 선전, 선동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가였다. 창경원 벚꽃의 꽃봉오리가 만개하려하는 4월 어느날 신문, 잡지의 발행문제를 검토하는 지도간부회의가 열렸다.

≪대내교양지와 대중계몽잡지를 각각 하나씩 내도록 합시다. 대내교양지는 조직성원에 대한 내부교양을 위한 비합법신문으로서, 대중계몽잡지는 합법을 가장한 잡지로서 현실폭로를 제일차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깊이 있는 방향으로 편집하도록 합시다.≫

김종태동지의 말이었다. 이견이 없었다. 계속해서 잡지발간에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가 토의되었다. 발행겸 편집인은 김 진환동지가, 주간은 김질락동지, 실제 내용편집은 이문규동지가 함께 담당하고 자금문제는 김종태동지가 담당하는 것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다음에 잡지이름은 당조직의 이름을 따라서 ≪통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간색을 띠면서 통일의 새벽을 부르는 의미에서 ≪여명≫으로 하는 게 어떻냐는 주장도 있었다.

≪우리들은 어떠한 분파와 파벌투쟁에도 오염되지 않고, 어떠한 사이비 ≪공산주의자≫와도 단호히 결별한 참된 혁명가, 말하자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따르는 가장 깨끗한 충성을 가진 새로운 혁명가의 집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잡지는 한국혁명의 필승의 담보이고 우리 당의 지도이념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민중의 마음에 심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잡지는 이러한 청신한 힘으로 일관하여야 하는데, 잡지 이름에는 우리의 이러한 의도가 포함되지않으면 안 됩니다.≫

김종태동지의 의견이 나오자 몇 가지의 안이 제출되었다.

≪혈맥≫ ≪청운≫ ≪청류≫ ≪청맥……≫

≪≪청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복동지가 입을 열었고 잠시 신중한 표정으로 있던 김종태동지가 입을 열었다.

≪찬성합니다≫

≪청신한 고동, 주체의 고동을 한결같이 전하는 (청맥),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주체 혁명위업의 푸른 지맥을 계승하도록 합시다≫

실무문제 토의가 일단락된 후, 공보부에의 등록허가는 김질락, 이문규동지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1964년 6월 6일 부호 ≪라-327호≫로 공보부 등록을 마치고 창간호 발간에 착수하게 되었다.

8월 3일에는 종로구 중학동 32번지에 ≪청맥≫사 간판을 내걸고, 74-0164번의 전화도 놓았다. 그러나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신길동, 무교동, 불광동 등 3차례나 세를 얻어 옮기면서 편집을 서둘렀다. 교통비조차도 없는 초기 ≪청맥≫편집에 있어서 김종태동지는 한 칸밖에 없는 집도, 값나가는 가재도구도 모두 팔아 버렸다. 김질락동지는 고향 영천에 돌아가 얼마쯤 융통하여 왔고, 이문규동지는 서가에서 책을 뽑아내 책방에 팔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자금에 충당하였다. 1964년 8월호인 ≪청맥≫ 창간호는 이와 같이 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기관지 ≪혁명전선≫ 제1호

통일혁명당

대중교양지로서 ≪청맥≫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자 그 인기는 굉장한 것이었다. 편집부에는 사의와 독후감, 이후의 기대를 쓴 편지, 구독신청서가 연일 쇄도하였다. 어떤 독자는≪한국사회의 병리를 해부하는 메스가 이제까지 볼 수 없게 예리하여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이후로 기대가 크다≫고 말하였다. 또한 어떤 대학교수는 ≪지식인을 위한 광장으로서의 색조와 농도, 격조가 마음에 들었다, 특히 감동을 받은 것은 일관되게 날카로운 민족자주의식, 주체의 사상관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잡지는 사대굴종의식에 오염된 사람들의 마음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를 심어주면서 수만의 대중을 민족적,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갔다. 바야흐로 매일 확대되어 가는 혁명대열 내 성원들을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이론으로 무장하기 위한 기관지를 발간할 시기가 되었다.

1966년도 저물어가는 어느날 기관지 발간문제를 토의하는 지도간부회의에서 김종태, 이문규, 김질락, 신영복, 이재학, 정종소 등의 동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정치문제를 김질락, 경제문제를 신영복, 사회문제를 이진국(가명)에게 각각 담당시켰다.

≪우선 신문의 이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규격이라든가, 페이지 수, 부수 등을 토론하도록 합시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 주시길 바랍니다.≫

편집주간격인 이문규동지가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가 생각해 온 안을 우선 제출합니다. 무슨 신보라든가, 무슨 신문이라고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전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예도 있읍니다. 지난날 중국공산당은 (구국신보)라는 이름을 붙였고,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방전선)이라는 신문을 내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이러저러한 예를 참고로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당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혁명의 전위당인 만큼 당원과 각계의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으로 결속해야 할 것이라는 정치활동의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 기관지를 ≪혁명전선≫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김종태동지의 이 제안에 신영복동지가 우선 찬동하였다.

≪조국통일과 한국혁명이라는 우리 당의 과제도 함축되어 있고, 통일혁명당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전원이 찬성하였다. 그리고 신문은 우선 등사규격으로, 당면은 2면으로 하고 부수는 점차로 늘리기로 하였다. 창간사를 비롯한 창간호 중요기사 분담까지 끝마쳤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편집위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분투 끝에 (혁명전선) 제1호가 나왔다. 철필로 긁은, 등사판으로 인쇄된 수십 부밖에 안 되는 신문이었지만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김일성**주의 출판물에 접했던 순간 편집위원 전원의 눈이 잠시 뜨겁게 빛났다. 흥분하여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김종태동지가 입을 열었다.

≪동지들, 기관지 창간으로 우리들도 바야흐로, 진리의 불모지인 이 한국땅에 영생불멸의 **김일성**주의 사상이론을 정력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많은동지들의 고난에 찬 투쟁에 의해 수행된 오늘 하나의 귀중한 승리이며, 우리 통혁당의 이름과 함께 역사에 남을 하나의 거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이 힘있는 정치선전수단으로 보다 많은 **김일성**주의자를 육성하고 각계각층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 통일혁명의 깃발 아래 강고하게 결집시키도록 합시다!≫

≪혁명전선≫ 제1호는 곧 바로 사람 손과 여러 운송수단을 통하여 통일혁명당서울시위원회와 전라남도위원회, 경상북도위원회 등 지방당조직에 발송되었다.

≪혁명전선≫ 발행의 나날들

1967년 1월 xx일

통일혁명당

며칠 밤을 새운 끝에 또 1호분의 편집을 마쳤다. 피로가 한꺼번에 밀어 닥쳐와야 할 텐데도 오히려 힘이 솟는 듯했다. 밤을 새워 타이프를 친 아내도 피로한 기미는 조금도 없었다.

≪고생하는군. 내가 교정보는 사이 잠시 옆에서 쉬도록 하지.≫

나는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위로했다.

≪저는 괜찮아요, 어쩐지 점점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신문이 윤전기에 걸어서 수만 부 찍는 신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힘이 솟지는 않았을 것같아요.≫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혁명이란 무한한 열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열정을 한없이 불어넣어 주는 것일 테니까……≫

아내의 타이프 솜씨가 미숙한 데다가 조직으로부터 처음 부여된 임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 아내가 즉석에서 해보겠다고 말해 주었을 때는 정말 기뻤다. 나는 통일혁명의 지하전선에서 함께 어깨를 걸고 서 있는 혁명동지이다라는 흡족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본다. 그리고 원지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였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의 귀중한 교시집이 어느 정도 편집되게 되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은 반제반파쇼민주화의 기치 아래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민중과 개별인사를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 기초가 되는 노농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 농민과 청년학생, 인텔리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슴으로 받아 들인다면 그대로 투쟁의 강령이 되고, 행동의 지침이되는 귀중한 교시이다.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신한당, 민중당의 합동대회에 관련된 사설도 훌륭하게 된 것 같았다. 파벌투쟁과 권력투쟁에 집착하지 말고 강경자세로 야당엣 대한 민중의 흐려진 인상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적중한 방침이었다. 1월 19일에 일어난 해군경비정 56함 침몰사건도 정확하게 문제화되었다. 사건의 본질과 혁명조직성원에게 주는 대중계몽방향도 명확하게되었다. 내가 타이프 쳐진 원지를 읽는 사이, 아내는 쉬지 않고 밖에 나가 망을보았다. 타이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에는 담요를 감아 막고 그 위에 방석을 덮어 씌웠다. 이렇게 해도 밖에서 잠시 귀를 기울여 들어 보면 타이프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마침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집이었으므로 사람이 오는 기미만 잘 감시한다면, 그 정도 소리는 전혀 염려가 없었다. 밤이 되었다. 곧 승용차가 올 것이다. 낮에는 신길동에 있는 황동지의 집에 가서 등사를 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결정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밤 통행금지시간 전까지 시내배포를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의 엄격한 감시하에 전개되는 지하출판활동, 이것은 실로 긴장된 투쟁이었다. 신문의 제목대로 이것은 하나의 혁명전선이다.

통일혁명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는 ≪혁명전선≫한 호는 이렇게 하여 탄생되었다.

구국전선

구국전선 (국문판)

≪구국전선≫은 영생불후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입니다. ≪구국전선≫은 한국 민중의 세기적 염원인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을 위하여 각계민중 여러분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주체90(2001)년

제448호 (7월 21일)
제447호 (7월 11일)
제446호 (7월 1일) 7.8 특집
제445호 (6월 21일)
제444호 (6월 11일) 6.15선언발표 1돌 특집
제443호 (6월 1일)
제442호 (5월 21일)
제441호 (5월 11일)
제440호 (5 월 1일)
제439호 (4월 21일)
제438호 (4월 11일) 태양절특집
제437호 (4월 1일)
제436호 (3월 21일)
제435호 (3월 11일)
제434호 (3월 1일)
제433호 (2월 21일)
제432호 (2월 11일) 2.16특집
제431호 (2월 1일)
제430호 (1월 21일)
제429호 (1월 1일) 신년특집

주체89(2000)년까지

제319호 주체86(1997)년 10월 11일 특간호
제326호 주체86(1997)년 12월 21일 특간호
호　　외 주체87(1998)년 9월 7일
제350호 주체87(1998)년 9월 11일 특간호
제398호 주체89(2000)년 2월 11일 2.16특집
제399호 주체89(2000)년 2월 21일
제400호 주체89(2000)년 3월1일
제401호 주체89(2000)년 3월 11일
제402호 주체89(2000)년 3월 21일
제403호 주체89(2000)년 4월 1일
제404호 주체89(2000)년 4월 11일 ÅÂ¾ÇÀ´ÝÆ¯Á´ý
제405호 주체89(2000)년 4월 21일
제406호 주체89(2000)년 5월 1일
제407호 주체89(2000)년 5월 21일
제408호 주체89(2000)년 6월 1일
제409호 주체89(2000)년 6월 11일
제410호 주체89(2000)년 6월 21일
제411호 주체89(2000)년 7월 1일
제412호 주체89(2000)년 7월 11일
제413호 주체89(2000)년 7월 21일
제414호 주체89(2000)년 8월 1일
제415호 주체89(2000)년 8월 11일
제416호 주체89(2000)년 8월 21일
제417호 주체89(2000)년 9월 1일
제418호 주체89(2000)년 9월 11일
제419호 주체89(2000)년 9월 21일
제420호 주체89(2000)년 10월 1일
제421호 주체89(2000)년 10월11일
제422호 주체89(2000)년 10월 21일
제423호 주체89(2000)년 11월 1일
제424호 주체89(2000)년 11월 11일
제425호 주체89(2000)년 11월 21일
제426호 주체89(2000)년 12월 1일
제427호 주체89(2000)년 12월 11일
제428호 주체89(2000)년 12월 21일

구국전선

≪구국전선≫ 편집국에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에 보낸 지지격려문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하여 7천만 온 겨레가 통일애국열기로 들끓고 있는 때에 자료집 ≪통일여명≫을 제작하고 ≪구국의 소리≫방송 내용도 정상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데 대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편집집단동지들에게 우리의 가장 열렬한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 속에서 탄생한 자료집 ≪통일여명≫과 인터넷 ≪구국의 소리≫는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애국투사들에게는 혁명적 양식을 주고 반미자주, 통일애국투쟁에로 고무추동하며 분열주의자들에게는 철추를 내리는 힘있는 무기로 될 것입니다.

반통일세력과의 대결은 생사를 동반하는 혈전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지들에게는 민족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해외 7천만 애국민중이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귀 편집집단이 시대의 요구와 민족민중의 크나큰 기대에 맞게 반미자주,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 영광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통일여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각계민중을 자주민주통일에로 불러일으키는 민중의 참된 선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주체90년 1월 24일 ≪구국전선≫ 편집국



구국전선

≪통일여명≫ 동지들에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통일여명≫, ≪6.15주간≫,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집단 동지들에게 우리의 동지적이며 전투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8.15를 기해 주체사상시디 배포투쟁을 성사시켜 이후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비록 파쇼의 광풍을 헤치며 죽음을 불사한 시련에 찬 투쟁이지만 정의와 애국에 살고 언제나 투쟁에 과감한 열혈 청년주체주의자들인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좌절을 모르고 끊임없는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길은 간고하고도 험난하지만 멀지 않아 우리는 자주화되고 민주화되고 통일된 새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주와 민주, 통일을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은 동지들의 지혜와 열정에 넘친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 통일애국의 길에 서슴없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애국의 성스러운 투쟁대오에 동지들과 함께 서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7천만 겨레 모두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새 시대의 요구와 각계 민중의 드높은 통일열기에 맞게 동지들이 변함없이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대로서의 본분을 다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구국전선≫ 편집국(ndfsk@campus.ne.jp)
주체90(2001)년 10월 1일



구국전선

더욱 헌신분투하겠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답신 (편집국 보도 14호)

존경하는 ≪구국전선≫ 편집국동지들에게 충심어린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을 비롯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구국전선≫ 편집국이 보내온 지지격려문을 격동적인 심정으로 받아보았습니다.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기관지, ≪구국전선≫이 이번에 보내온 공개격려문은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고무적 기치로 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파쇼의 광풍을 헤치며 죽음을 불사한 시련에 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필승불패의 한민전이 있기에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최후의 순간에도 통일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며 굴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 초의 경우처럼 이번의 지지격려문도 우리의 한없이 부족한 선전활동에 대한 과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향후 더욱 헌신분투할 것을 바라는 지도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인 변혁투쟁의 노정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자주민주통일의 선봉대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위임에 의거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0월 2일
서울



구국전선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발췌)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90년 6월 13일~16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한돌에 즈음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13일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석상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출판보도부문기자들과 외국특파기자들, 우리 나라주재 여러나라대사관 출판관계일군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온 겨레가 분단사상 처음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한돌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이남의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 7천만 민족에게 통일의 밝은 빛을 안겨주고 민의를 격동시키는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장군님을 끝없이 우러러 숭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어오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회견에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숭배열기와 통일열기로 가득찬 이남의 민심동향에 대하여 통보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남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는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을 연구체득하는 새로운 단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남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바로알기운동≫과 대학원들에 북한과가 신설되고 주체사상토론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그 한 실례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이남의 각계층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토론회가 공개적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북한과들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영도≫, ≪주체사상연구≫ 등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이론과목들이 취급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학습교재로 되고 있습니다. 이남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5월까지 인터넷자료집 ≪통일여명≫ 창간호와 2호, 3호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구국전선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를 비롯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 전문들을 실었으며 수십제목의 노작제목들을 학습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실로 이남에서 일고있는 위인숭배열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력에 공감하고 탐복한 이남민중들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중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뭉쳐 사상도 굳히고 풍모도 같이하려는 열정의 발현입니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이론과 영도력, 위인적 풍모에 매혹된 이남의 각계민중의 위인숭배열기는 또 새로운 통일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남민중의 통일운동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과 노선과 따라 힘있게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노선에 이남민중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호응해 나서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이남민중의 인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오늘 절대다수 민중이 미군의 이남강점을 종식시키고 남북대결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후 통일문제연구단체들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가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했고 미국인을 이남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외국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언론들에서는 ≪미군은 이땅에서 물러가라≫는 표제의 특집을 게재하는 등 반미의식화에 초점을 맞추고있고 각계층 민중들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반미투쟁단체들을 조직한 데 이어 하나의 통일적인 반미운동연합단체 조직에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사상에 대한 이남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반대배격하여 나서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한총련,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8개단체의 주최하에 이남의 각계민중은 서울에서 미사일방어체계구축저지와 한반도평화실현범국민대회를 열고 북침을 목표로 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구축책동을 반대배격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남의 종교인대표 103인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시기 적지않은 이남 민중이 미국을 보호자로 생각하면서 통일후에도 미국이 주둔해야 한다고 대답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의식전환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남에서 통일운동이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사상과 노선에 따라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또한 통일운동이 이북민중들과 연대연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남민중의 통일운동에서 이북민중들과의 연대연합은 지난 1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에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



구국전선

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설정할 데 대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북녘 친구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남에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8개 사회단체들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이북과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는 6월 15일에는 남북의 각계인사 600여명의 참석하에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통일토론회를 금강산에서 가지자는 이북의 제의에 호응하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단체들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지난 5월, 이북의 노동자들과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 5.1절통일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길에서 노동자계급이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남의 남북교육문화교류 연구소는 조선기자들과 서울과 평양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소재하의 사진전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그 준비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할 수 없었던 이러한 제반사실들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가져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이남민중의 흠모의 마음을 담아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군님께서 영원히 청춘으로 지내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옹호고수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이남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와 조국통일열기에 의해 미국과 수구세력들, 분열주의세력들이 위축되었었던 그들의 침략적 반통일적 책동은 더욱 교활하게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핵문제, 미사일문제에 이어 재래식무기문제까지 고안해가지고 강경대응, 동해에 무력배치를 진행하며 통일의 길에 방해를 조성하고 있고 이남의 반통일세력들은 공조와 안보를 떠들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저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단합의 국면을 냉전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흉악한 범죄적 책동입니다. 그러나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통일의 진로를 따라 전진하는 한민전과 이남민중의 앞길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 민중과 더불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 나감으로써 기어이 통일의 새 날을 앞당기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내외기자여러분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정의의 필봉으로 한민전과 이남민중들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해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구국전선

한민전 사이트에 통일여명 게재

한민전 사이트에 통일여명 창간호부터 5호까지 게재!

한민전의 인터넷 구국전선 한글파일자료게시판에 통일여명이 창간호부터 5호까지 실려 있습니다.

한민전의 사이트가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민족통신의 ≪주요사이트 소개≫의 ≪단체≫란을 클릭한 후 ≪한민전≫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일여명 애독자

구국전선사이트의 체계 개편과 통일여명 자료 전호 게재

* 바뀐 인터넷 구국전선(http://www. ndfsk. dyn. to/)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민전 / NDFSK
한민전 중앙위 최근 소식
구국전선 (국문판)
Kuguk Chonson (English edition)
한민전 중앙위 주요문헌
추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
추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노작
참고자료
동영상 / 음악 / 사진편집물
편지
시사레포트 (한민전 평양대표부)
hwp파일 자료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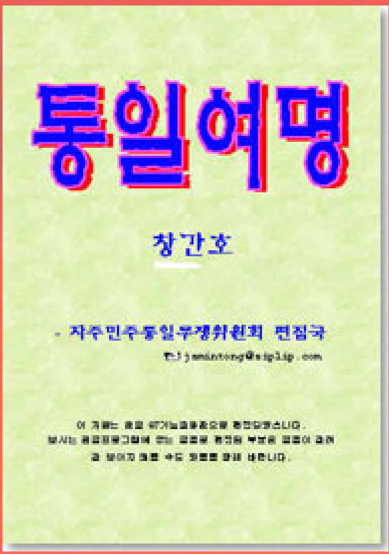
* hwp파일 자료모음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hwp파일 자료모음
hwp파일 읽기 위한 나모 뷰어 내려싣기
≪구국의 소리≫
2000년 12월 27일 - 2001년 1월 6일
2001년 1월 7일 - 13일 1월 14일 - 20일 1월 21일 - 27일
1월 28일 - 2월 3일 2월 4일 - 10일 2월 11일 - 17일
2월 18일 - 24일 2월 25일 - 3월 3일

구국전선

2. 16 특집
3월 4일 - 10일 3월 11일 - 17일 3월 18일 - 24일 3월 25일 - 31일
4월 1일 - 7일 4월 8일 - 14일 4월 18일 - 21일 4월 22일 - 28일
태양절 특집
4월 22일 - 28일
≪통일여명≫
창간호 (주체89. 12. 7) 제2호 (주체90. 1. 25)
제3호 (주체90. 2. 20 -2. 16특집편-)
제4호 (주체90. 3. 20) 제4호 부록
제5호 (주체90. 4. 20 -태양절 특간호-)
≪사상전≫ 1
≪백두장군≫ -백두청년회-
≪세기와 더불어≫ 1 2 3 4 5 6 7 8
≪노 작≫
주체사상 노작 60선
≪21세기의 태양≫
향도의 태양 **김정일** 민족관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김정일장군 영도철학 21세기 **김정일**시대 운혜로운 사랑의 태양
≪주체사상총서≫ 1 2 3 4 5 6 7 8 9 10
≪한국변혁운동≫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통혁당 한국사회성격논의의 재조명
한국전위조직운동사 전환기 한국학생운동의 방향성
노래로 엮어본 한국현대사 애국시대 햇살들의 노래
≪학습자료≫
철학의 정립 1 2 민족해방철학 재미있는 철학강의 정통과 계승
민족과 철학
주체철학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도해
우리사상의 혁명
주체의 수령관 주체의 인생관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주체의 철학사전 주체청치경제학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새시대 정치학원론
현대조선역사 조선노동당약사 정치사전 경제사전
≪이북 문학≫
닻은 올랐다 혁명의 여명 은하수 대지는 부르다 봄우뢰
1932년 압록강 잊지못할 겨울 50년 여름 승리 역사의 대하
영생 조국과 청춘 백양나무 청춘송가 대학시절 쇠찌르레기
뻐꾹새가 노래하는 곳 백두산 위대한 사랑 벗 60년 후
땅과 말하는 처녀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현세의 한울님
문예창작방법론 북한의 문예이론 민족주의문학에 대한 주체적 시각

구국전선 사이트 소개

≪통일여명≫을 발간하며



≪통일여명≫을 발간합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이후 변혁과 통일을 향하여 수직상승하는 격동적인 오늘의 정세를 반영하여 그간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인터넷 상에 발표된 좋은 자료들을 모아 자료집형태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통일여명≫은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편집국에서 제작한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인터넷에 공개되어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논문들과 수필들을 모아 묶어놓은 말그대로 자료모음집입니다.

≪통일여명≫은 다음과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제작됩니다.

우선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발간하는 만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지도사상과 그 사업목적에 맞게 응당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과 조선혁명의 참모부 조선노동당과 한국변혁의 사령부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주요문헌들을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별하여 게재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기간 계기마다 발표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주요문건들을 취합하여 정리해 놓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세를 반영하여 발표한 문건들을 운동가들이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더불어 이는 그간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방해공작이나 우리의 사상전에 대한 분파주의자들의 훼방책동을 분쇄하는데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문건들과 본 자료집의 ≪편집국 주≫만이 우리 대오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 발표된 한국변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좋은 논문들을 적극 찾아 게재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논문들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발표된 논문들의 일부를 깊이 검토해본 결과 비록 제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혁과 통일을 위한 좋은 문제제기이며 충분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이만한 글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품을 들여 집필한 글들이 인터넷 상에 적지 않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가들이 그 가치를 폄하하며 깊이 연구하지 않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여 이런 논문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았으니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간 인터넷 상에서의 중요논쟁에 대하여 그 원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운동가들이 보다 변혁적 원칙에 의거하여 뚜렷이 진위를 가려보도록 하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주요사이트들은 게시판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운영상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기회주의자들은 상황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교활한 책동을 악착같이 벌이는 법입니다. 하여 적지않은 운동가들이 이런 혼란스런 논쟁에 환멸을 느끼며 허무주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쟁과 관련한 자료를 엄선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독자들이 어지러운 현상 이면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그간 인터넷 상에 발표된 좋은 성명이나 논문, 수필, 시 등을 취합하고 선별하여 담아낼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광대한 공간에서 한번 읽고 사장되어 버려서는 안될 귀한 자료들을 발굴함으로써 그 진가가 널리 확인되고 두고두고 읽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

과 좋은 글들이 인터넷 상에 더욱 많이 발표되는 것을 촉진하리라 믿습니다.

≪통일여명≫은 전적으로 인터넷 상에서만 부정기적으로 발간됩니다. ≪통일여명≫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전국연합(www.nadrk.org)이나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 등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게재한 사이트들은 민족통신을 비롯한 주요 운동단체의 게시판에 널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여명≫은 자료모음집으로서의 성격이므로 이곳에 실리는 자료들은 원문을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손을 댄 것은 오직 맞춤법과 편집형식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의 특성과 이런 자료모음집의 성격상 자료들의 집필자나 작성단체를 통해 ≪통일여명≫에의 게재를 허락받을 수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확인하는 한편 그 분들이나 단체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변혁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빛을 발하는 사상이론적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후 한국의 애국운동가들이 ≪통일여명≫의 발간과 같은 선전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주체89년 12월 7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편집국

2호 발간에 부쳐



≪구국전선≫(kuguk@alles.or.jp)편집국에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편집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격려의 글을 ≪민족통신≫과 ≪전국연합사이트≫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하여 7천만 온 겨레가 통일애국열기로 들끓고 있는 때에 자료집 ≪통일여명≫을 제작하고 ≪구국의 소리≫방송 내용도 정상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데 대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편집집단동지들에게 우리의 가장 열렬한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 속에서 탄생한 자료집 ≪통일여명≫과 인터넷 ≪구국의 소리≫는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애국투사들에게는 혁명적 양식을 주고 반미자주,통일애국투쟁에로 고무추동하며 분열주의자들에게는 철추를 내리는 힘있는 무기로 될 것입니다.

반통일세력과의 대결은 생사를 동반하는 혈전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지들에게는 민족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해외 7천만 애국민중이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귀 편집집단이 시대의 요구와 민족민중의 크나큰 기대에 맞게 반미자주,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 영광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통일여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각계민중을 자주민주통일에로 불러일으키는 민중의 참된 선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주체90년 1월 24일
≪구국전선≫ 편집국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 곧 한민전의 기관지인 ≪구국전선≫의 편집국에서 이와같은 지지격려의 글을 공개한 것은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통일여명≫과 인터넷≪구국의 소리≫ 편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에 최대의 영광으로 됩니다.

특히 자료집 ≪통일여명≫과 인터넷 ≪구국의 소리≫를 통일애국투사들에게 혁명적 양식을 주고 반미자주로 추동하며 분열주의자들에게는 철추를 내리는 힘있는 무기로 평가하며 한민전의 ≪구국전선≫ 편집국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지지격려한 부분은 투쟁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무상의 영예, 고무적 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한민전이 인터넷상 대외공식창구인 인터넷 ≪구국전선≫이 아닌 다른 사이트를 통하여, 특히 한국운동가들이 애용하는 ≪민족통신≫, 인터넷≪전국연합≫와 같은 공간에 그것도 ≪구국전선≫ 편집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한 변혁운동단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지격려하는 글을 띄운 것은 한국변혁운동사상 처음있는 사변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편집국성원들은 ≪통일여명≫이라는 자료집발간이나 ≪구국의 소리≫방송의 녹취채록사업이나 모두 미흡한 내용과 천박한 형식을 항상 자책해 오던 차에 이런 과분한 격려의 글을 접하게 되니 부끄러운 마음 한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구국전선≫편집국의 이례적인 격려를 더욱 헌신분투하고 계속혁신하라는 지적과 비판으로 받아들이며 이후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 청년변혁운동가답게 자주민주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 영광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애국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민중을 투쟁으로 호소하는 선전자, 조직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통일여명≫ 2호는 21세기 첫해를 맞이하며 지난세기를 총화하고 새세기 첫해의 투쟁을 호소하는 글들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현재 전투적으로 진행중인 동기주체사상학습에 참고가 되고 반통일역적들을 규탄하며 신념과 양심을 호소하는 글 등을 강조하여 실었습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와 이산씨의 ≪한국변혁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라는 논문, 반단특위의 ≪김영삼역적의 10대죄악을 고발한다≫는 단죄문 등은 ≪통일여명≫ 창간호 원판이 아니라 증보판에만 실렸고 그 의의가 큰 글들이기에, 한백연씨의 논문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 조직체 건설문제≫ 또한 당면한 민족민주전선체건설문제와 관련하여 필독하여야 할 글이기에 이번호에 다시 게재합니다.

≪통일여명≫에 대한 ≪구국전선≫편집국의 과분한 평가와 운동가들의 지지성원에 힘입어 애초의 격월간 계획을 바꾸어 앞으로는 매월 발간할 것이며 시기도 중순경으로 고정할까 합니다.

또한 다음호부터는 인터넷≪구국전선≫의 모범을 따라배워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성원들의 글을 발표하는 독자적인 란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일여명≫ 3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일이자 민족최대의 명절인 2월 16일을 기념하는 특집호로 발간될 것입니다.

주체 90년 1월 25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편집국

편집국에서 (통일여명 3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자료집 ≪통일여명≫ 제3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통일여명≫ 3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약속한 대로 21세기 첫 민족최대명절인 ≪2.16특간호≫로 꾸몄습니다.

하여 이번 호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하여 몇가지 특집내용을 실었습니다.

본 자료집의 제한된 용량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만 게재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6.15공동선언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군님에 대한 관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호부터는 ≪학습노트≫란을 신설하여 주체의 철학, 역사, 정치경제학, 전략전술론에 대한 주체사상 교재의 중요내용을 발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선전국의 선전활동에 호응하는 조치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선전국은 ≪고난의 행군≫기간 유실되고 또 새롭게 발간된 주체사상교재들을 복원하고 널리 공개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체사상의 ≪6대 입문서(개론서)≫, 주석님과 장군님의 주요노작, 회고록, 주체사상총서라는 기본교재를 복원하였는가 하면 올해에는 무려 ≪정통과 계승≫, ≪닻은 올랐다≫, ≪철학사전발췌본≫ 등 무려 40권의 주요교재를 입력 또는 재편집하여 2월 16일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 운동대오가 이 귀한 서적들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소화하는 것 뿐입니다. 하여 ≪학습노트≫란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며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세가 요구하는 긴절한 이론적 문제에 대한 참고자료를 담게 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창간호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인터넷 통신공간에 게재된 수많은 자료 중에서 우리 운동대오에 필요하고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자료들을 모아 발간하는 한마디로 자료모음집입니다. 하여 이 자료집에서 우리가 백프로 동의하는 내용은 주석님이나 장군님의 노작이나 전위조직의 문헌이 아니면 우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문건들 뿐입니다. 이미 창간호에서 밝혔듯이 ≪이론과 실천≫란과 같은 공간에 게재된 논문들은 우리 논문들도 아니며 전적으로 공감하는 논문도 아닙니다. 다만 한국변혁운동대오가 긴절하게 생각하는 이론실천적 문제에 대해 이만한 논문이 드물고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하다고 판단하여 올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창간호에 실린 ≪변혁운동가들은 올바른 정세관을 확립하고 실천투쟁을 전개하자≫라는 논문은 우리 조직의 문건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간 쯤의 ≪한 전위조직의 중앙위≫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만약 이 전위조직이 한민전을 일컫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애초에도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으나 전반적인 내용이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게재한 것뿐입니다. 우리 조직은 한민전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전대 조직인데 어찌 한민전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민전이 지난 수십성상의 변혁투쟁과정에서 단 한번의 노선과 정책에서 오류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본 자료집에 대하여 분량을 한번에 내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기에 이를 참작하여 내용은 최대한 충실하게 담되 분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 자료집이 우리 운동대오의 사상이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본 자료집사업을 계기로 한국의 다른 청년전위조직들이 통신출판사업, 통신선전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6.15공동선언 이후 수직상승하고 있는 변혁정세의 요구이며 한민전의 ≪구국전선≫ 편집국에서 이례적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편집국에 보낸 지지격려문의 기본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체 90(2001) 2월 20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통일여명≫ 편집국

편집국 (통일여명 4호)



통일여명 4호에서는 다음의 내용의 담겨있으며 ≪정세분석≫, ≪기념일≫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확인됨에 따라 이북은 이를 격렬히 규탄하고 김대중정권은 그 사이에서 동요하는 정세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정세에 대한 동지들의 분석, 이해를 방조하기 위한 자료를 ≪정세분석≫란을 비롯해서 ≪이론과 실천≫, ≪단죄규탄≫, ≪학습노트≫(정치경제학) 등 여러 란에 걸쳐서 집중게재하였습니다. 올해의 본격적인 투쟁국면이 다가옴에 따라 ≪정세분석≫란을 신설, 당면정세의 촛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게재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민전에서 사상운동과 관련한 방침을 연일 보도하고 있고 한총련 9기 중앙총회를 계기로 한총련 내 분파주의, 관료주의와의 사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한 기사를 ≪노작≫, ≪통신연단≫, ≪화제초점≫, ≪구국의 소리≫ 등의 고정란에 게재하였으며 사상운동 관련 발췌집을 특집하여 담았습니다(특집란).

다음 3월 15일(1964년)은 한민전의 전신인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기념일입니다. 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주체사상시디배포투쟁의 시기를 이 날과 연관지어 조직전개하였으며 이번 호에는 통일혁명당과 관련한 내용이 폭넓게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우선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학습노트≫(역사)란에, 통일혁명당과 한민전의 강령이 ≪문헌≫란에, 그리고 당시의 전반적 정세가 신설된 ≪기념일≫(4.19혁명일)란에, 마지막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투쟁은 ≪자주민주통일위원회≫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3월 8일 국제부녀절을 기념하여 발표된 한민전 부녀국장의 담화와 기타 여러 내용이 각각 ≪구국의 소리≫란과 ≪수필≫란에 담겨있습니다.

다음 정세가 복잡하고 사상운동이 활발하며 반통일세력들이 발악하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체의 사상과 전략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 통일여명에서는 주체사상 관련 선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난 호부터는 아예 ≪학습노트≫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주체사상학습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는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호소를 비롯해서 주체철학의 중핵적 개념 중 하나인 존재, 속성, 운동의 연관에 대한 자료, 기타 당면한 사상전략문제가 게재되었으며 사상학습기풍을 혁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 내용이 ≪학습제일주의≫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답방환영사업을 이번 호부터 ≪연속기획≫란을 신설하여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

는 이남 운동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연합과 한총련이 각각 대의원대회, 중앙총회에서 천명한 관련 특별결의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의 간고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총화하며 건설되고 있는 여러 연대조직, 전선조직을 특집하여 실었습니다. ≪통일여명≫은 여러 연대조직, 전선조직과 올해의 답방환영위원회가 한국변혁운동의 숙원인 대규모 민족민주전선건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며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특별히 집중게재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호에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김영삼, 이회창한나라당, 조선일보 등 반통일역적들과의 투쟁을 반영하여 이 역적들을 단죄규탄하는 내용과 송학삼씨, 임태열씨를 구속하고 연대조직사건을 조작하려는 국가정보원의 만행을 단죄하며 구속자들,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 수배해제, 국가정보원의 해체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기간에는 가슴아픈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통일운동, 재일동포운동에 헌신한 한덕수총련의장이 서거하였으며 견결한 여성운동가, 노동운동가 이옥순여사, 애국적 청년운동가 이은경씨의 어머니와의 영별이 있었습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이 자리를 빌어 고인들의 명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고인들의 생전의 염원, 조국통일의 애국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헌신분투할 것입니다.

주체 90(2001)년 3월 20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통일여명 편집국

편집국에서 (통일여명 5호)



≪통일여명≫ 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통일여명≫ 5호는 최근 21세기 첫 태양절을 맞이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가 그간의 투쟁을 총화한 후 주동적으로 내린 조치에 의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이름으로 발간되는 첫 자료집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부터는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표시가 ≪통일여명 편집국≫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다음 호부터는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란≫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양절 특간호인만큼 태양절 특집 기사를 중점적으로 실었습니다. 이 란들을 통하여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적 풍모와 위대한 생애를 다시금 가슴절절히 회억하는 한편 주석님과 사상, 영도, 풍모에서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충효심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총련대의원대회 특집기사를 많이 담았습니다. 4월 한총련대의원대회는 한국학생운동사의 일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총련내 분파주의, 관료주의세력과의 사상투쟁에서 중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에서는 지난 기간 통신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총련비선분파와의 일대 사상전과 당선된 한총련의장의 정책과 노선을 종합정리하였습니다. 이는 한총련대의원대회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분파관료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이라는 민족통일전선의 상층통일전선이 형성된 후 격변하는 정세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정세분석자료와 그 이론적 바탕이 되는 통일전선론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인류변혁운동사의 가장 복잡한 이론실천적 문제 중의 하나이며 당면한 초

미의 이론적 과제인 통일전선론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을 결사반대하며 발악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반통일세력들을 규탄하는 내용을 집중게재하였습니다. 김영삼, 이회창한나라당, 조선일보, 국정원, 내외호전세력 등의 반통일세력에 대한 통일여명의 단죄규탄투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동지들의 이해를 방조하기 위한 자료들을 적지 않게 포함하여 놓았습니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학습경험은 말할 것도 없도 주체사상총서전권문답자료를 비롯하여 철학, 역사, 정치경제학, 전략전술론의 원론적 문제나 당면정세 관련한 내용은 동지들의 주체사상학습에 올바른 관점확립과 더불어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시의 주의사항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투쟁공간이며 투쟁수단입니다. 우리 운동가들은 이 내용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시 우려되는 공안당국의 간교한 탄압책동에 든든한 방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별기획은 연재될 것입니다.

통신공간은 현실공간의 반영으로서 한국변혁운동의 현황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며 좋은 학습교재, 이론논문, 정보자료들이 집중되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실천공간입니다.

≪통일여명≫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자칫 놓쳐버리기 쉬운 귀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주체의 변혁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지들의 변혁운동을 원호하는 역할을 이후에도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출판보도물은 전투적이고 예리한 사상적 무기라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침을 심장에 새기며 ≪통일여명≫ 편집국은 변혁승리의 그날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년 4월 20일

편집국에서 [통일여명 6호]



월간 통일여명 6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한민전의 개편된 인터넷 구국전선의 내용을 발췌하는 ≪구국전선≫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호에 예고한 대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란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 대신 ≪통일여명≫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시와 노래≫로 ≪수필≫은 ≪정론과 수필≫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기간의 최대 뉴스는 바로 한민전의 인터넷 구국전선에 월간 통일여명의 전호와 사상전1과 같은 자료집, 주간 인터넷 구국전선, 백두청년회의 전자우편, 그리고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에서 입력공개한 수많은 학습자료들이 전면적으로 게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통일여명 5호의 사상전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한 민족통신의 삭제건 직후 이루어진 일이라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고 빛나는 사변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한민전의 과분한 평가와 신임에 계속혁신과 계속전진으로 보답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의 정세에서 초점은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과 국가미사일방어체계를 추진할 명분과 동력을 얻기 위하여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리는 부시정권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통일여명 편집국에서는 국가미사일방어체계라는 단행본격 자료집을 발간하며 독자동지들이 국가미사일방어체계의 본질과 추진과정,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자료집의 중요내용을 발췌하여 특집기획 형태로 삽입시켰으며 ≪구국의 소리≫란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집중게재하였습니다.

21일 발표되었고 ≪이론과 실천≫란에 게재된 최성원씨 대표집필의 ≪두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은 그 검토를 위해 통일여명의 발간을 늦출만큼 좋은 논문입니다. 우리는 이 논문이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 당면투쟁과제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료에 근거하고 명확하게 서술된 문제작이라고 판단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이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독자동지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편집국은 특히 당면해서 민족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 생활적 반미대중투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통일전선론≫이라는 단행본격 자료집 외에 ≪6.15공동선언≫, ≪국가보안법≫, ≪반미대중투쟁≫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시급히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역시 한국학생운동이 분파주의, 관료주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투쟁과 결합된 사상전, 사상교양과 결합된 사상투쟁을 위하여 이번 호에도 많은 분량을 여기에 할당하였으며 다차원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한총련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학생운동의 단결과 실천투쟁과 사상전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사상전의 일대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달 15일이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는 이를 기념하면서 관련자료와 함께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당면과제인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국가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반대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과 김동신국방부장관,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과 현정권의 6.15공동선언에 반하는 반민주행태, 곧 한총련과 학생운동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단죄하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혁운동가에게 첫째가는 임무가 바로 학습인 것인만큼 이번호에서도 동지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한 자료를 중시하였으며 특히 한민전 사이트에 수많은 학습자료가 공개게재된 조건에서 대대적인 주체사상학습운동, 주체사상학습소조운동을 재삼 강조하기 위하여 그간 발표되었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관련문건들을 재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호에 이어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집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월간 통일여명은 인터넷 상에 공개되는 전위조직의 문헌과 우리 운동대오의 글들, 그리고 사상교양자료를 선별종합하여 주체의 사상과 전략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보기 쉽게 편집한 새형의 인터넷 자료집, 기관지입니다.
동지들, 독자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자료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위조직의 과분한 신임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체 90(2001)년 5월 22일
월간 통일여명 편집국
서울

편집국에서 [통일여명 7호]



인터넷 자료집 월간 ≪통일여명≫ 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한 돌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다만 ≪6.15공동선언≫과 ≪통일전선≫이라는 제목의 방대한 자료집이 이미 통신에 발표된 조건에서 이와 관련한 특집기획은 생략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 자료집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반미대중투쟁≫과 ≪6.25전쟁≫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이 곧 발간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특집기획도 생략하였으니 역시 필요하신 분은 추후 이 자료집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통일여명≫은 인터넷 월간 자료집으로서 그간 통신상에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던 사상전에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도 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여명≫ 편집국 명의의 ≪6월 1일 호소문≫과 ≪6월 15일 호소문≫이 천명한 대로 적어도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상전 관련 자료게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편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그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사상전의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던 내용들이 일체 생략되었습니다.

한국학생운동의 혁신과 단결을 바라며 보내는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와 과감한 조치에 상대측의 응당한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편 ≪통일여명≫은 한글파일로 된 월간 인터넷 자료집이라는 성격상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의성이나 간결성, 입체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동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이 문제가 해결되면 ≪통일여명≫은 자료편집에서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이며 본연의 역할에 더욱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통일여명≫만 보면 지난 한달 동안의 전위조직의 방침부터 해서 이북과 이남을 비롯하여 조국반도의 정세동향이 입체적으로 파악되고 운동대오에서 긴절하게 제기되는 이론실천적인 문제나 사상투쟁이 명료하게 해명되는 한편 주체의 사상과 전략, 체계와 방법에 대한 학습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여명≫은 아직 혁신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의 내외신 기자회견문에서 언급된 우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분에 넘치는 신뢰의 표시라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의 기치, 애국의 필봉을 더욱 높이 들고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6월 20일
서울

한국학생운동의 혁신과 단결을 위한 통일여명 편집국 호소문

감격적인 6.15공동선언 1돌을 눈앞에 두고 열리는 새세기 첫 한총련출범식은 백만학도만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세력 전체의 일대 축제로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총련은 사실상 완전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지난해 온 민족을 격동시켰던 6.15공동선언과 동지애의 정신을 오늘의 학생운동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한총련출범식에서는 개최횟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임시중앙총회가 어렵게 마련되어 제반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재일우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학생운동세력의 진실된 통일단결을 위하여 한총련주도세력(이른바 한총련비선세력)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제안을 하는 바이며 반드시 실현되기를 심장으로 호소합니다.

한총련주도세력은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 한총련의 혁신과 단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1.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 한총련주도세력이 한총련의장 중심으로의 혁신과 단결을 선언합니다

1)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 한총련 핵심일군들이 지난해와 올해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총화와 혁신의 의미에서 백의종군의 결의를 밝히고 잠정적으로 상집체계를 정지하며 의장직할집행체계로 전환합니다.

2)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 지난 기간 한총련내에서 이단시되었던 일부 지역총련과 단위의 추천간부들을 한총련간부로 인선합니다.

3)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 한총련이 다른 좌파 학생운동권과 비운동권까지도 광폭적으로 포용하는 통일적인 학생운동조직건설의 결의를 발표합니다.

한총련간부들이 한총련의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기간의 관료주의적 작풍을 비롯한 사상적 문제들을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탄핵이나 사퇴대신 취하는 체계전환조치는 해당일군들의 지난 활동의 긍정성을 고려하고 학생운동권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대승적인 합리적 방안으로 될 것입니다.

한총련간부인선문제는 지난 대의원대회의 정신과 현재 활동중인 한총련간부들의 인선시 기준과 관례에 의거한다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다른 운동권까지 포용하는 정책은 올해 초에 발표된 총노선에도 이미 언급된 사항이므로 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번 한총련 임시중앙총회는 한총련주도세력에겐 영예로운 혁신의 장이 되고 모든 한총련운동가들에겐 격동적인 단결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6.15공동선언 1주년과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맞이하며 한총련주도세력이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일대 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혁신적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2. 6.15공동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한총련주도세력이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혁신적 조치를 취합니다

1) 6.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한총련주도세력과의 관련사회단체가 통일연대에 상근간사를 파견하며 통일연대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추동합니다.

2)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한총련주도세력이 한총련과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의 연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적극 전개합니다.

3) 가능하면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 이상의 결의를 발표합니다.

현재 우리 민족민주운동대오는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주체세력들의 역량이 미약하여 응당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세력과 사회운동세력 간의 공고한 연대활동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총련주도세력과의 관련사회단체가 이미 통일연대에 가입한 조건에서 상근간사 파견과 적극적 활동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동당을 무슨무슨 주의라고 규정하며 연계를 홀시하는 편향이 그간 청년학생운동세력에 존재하였던 문제를 이제는 분명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연합은 한총련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강화발전시켜야 할 민족민주전선이며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정세발전의 요구로 보나 민족민주운동대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나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사실 올해초에 발표된 총노선에서나 최근 민주노동당과 한총련중앙과의 간담회를 보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한총련의 인식은 이미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총련주도세력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인식은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이며 지역통일전선운동과 민족민주전선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3.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통일여명 편집국은 한총련주도세력에 대한 일체의 관련사상전을 중단할 것이며 나아가 이상의 조치와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1) 1항의 요구가 실현된다면 6월 안 발간예정인 관련사상전자료집 사상전2 제작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통일여명 7호부터 관련사상전자료를 일체 게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2항의 요구에 한총련주도세력이 동의하며 이를 추진한다면 통일여명 편집국은 한총련주도세력의 이상의 조치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지지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모든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2항의 요구실현에 결정적 진전이 있을 경우 통일여명 편집국은 통일여명 과 사상전1 등이 게재된 모든 사이트에서 관련사상전자료를 삭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삭제를 공개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운동조직이 아니라 변혁운동조직입니다.

우리는 학생운동의 주도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관심이 있다면 통일적인 학생운동조직건설과 학생운동의 대중화, 그리고 통일전선운동발전뿐입니다.우리가 반대한 것은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분파주의와 학생운동을 침체시키는 관료주의이지 세력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총련주도세력이 통일적인 학생운동조직건설과 통일전선운동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료주의작풍을 혁신하고자 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1주년과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눈앞에 둔 오늘, 우리에게는 한총련의 혁신과 단결을 통하여 학생운동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운동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중차대한 과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임시중앙총회마저 기간의 분열상이 재현되며 지리멸렬한 논의가 반복된다면 한총련운동가들과 백만학도는 한총련주도세력을 결정적으로 외면할 것이며 한총련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한총련출범식과 임시중앙총회가 역사적인 통일단결의 장, 투쟁결의의 장이 되길 바라는 우리의 진심어린 호소에 한총련주도세력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통일여명 의 활동을 지지하는 모든 운동가들이
이 호소문을 찬동할 것을 확신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6월 1일
서울

≪8.15주체사상시디배포투쟁≫을 총화함

통일여명 편집국 통보(편집국 보도 1호)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비합선전투쟁소식을 동지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지난 8월 13일에는 서울의 대다수 대학교에, 8월 15일에는 민족통일축전이 열리는 연세대학교 행사장의 각계각층 속에 주체사상시디를 대대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수천개나 배포된 주체사상시디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하여 ≪세기와 더불어≫ 전권, 주체사상 총서, 주체사상 주요사전, 주체사상 주요개론서, 불멸의 혁명역사 총서, 불멸의 향도 총서 등의 자료와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넷 ≪구국전선≫, 조선신보 등이 보완된 자료, 주석님과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화보집과 혁명송가들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주간 인터넷 ≪구국의 소리≫와 월간 인터넷 자료집 ≪통일여명≫과 PDF주간지 ≪6.15주간≫이 최신자료까지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이중삼중의 파쇼폭압망을 뚫고 예측불허의 상황에 임기응변하며 무사히 이번 투쟁을 성사시키었습니다.

청년주체주의자들은 1년 넘게 간고분투하며 입력사업과 편집활동, 배포투쟁을 전개한데 대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널리 전파한 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이번 8.15투쟁을 전환적 계기로 삼아 지난 사업을 뜻깊게 총화하는 한편 향후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으로 투쟁할 열화 같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필승불패 한민전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청년주체주의자들의 투쟁은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8월 20일
서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활동을 시작함

통일여명 편집국 통보(편집국 보도 2호)

통일여명 편집국은 전국의 동지들에게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주객관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변인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은 향후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변혁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8월 20일
서울

월간 ≪통일여명≫의 체계를 혁신함

통일여명 편집국 통보[편집국 보도 3호]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애독자동지들에게 통일여명의 체계를 혁신하였으며 앞으로는 매월 1일에 발간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간의 애독자동지들에게 익숙해 있는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구성의 치밀성과 내용의 호소성을 높이는 한편 자료집 성격에 맞게 다양한 자료를 풍부히 수록하는 방향에서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원문과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 그리고 일화를 해당정세에 맞게 수록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원문과 더불어 지난 일화를 해당정세에 맞게 수록하는 한편 지난 한달간 전개하신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소개합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에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문헌이나 발표문건과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한달간 기사를 인용, 게재합니다.

≪애국적 전위대 한민전≫에서는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중앙위원회 문헌과 대변인 성명을 비롯하여 ≪구국의 소리≫방송문건과 인터넷 ≪구국전선≫ 자료들을 정세에 맞게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전적으로 청년주체주의자들이 만드는 고정란으로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대변인 보도를 비롯해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등을 게재하는 한편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수필을 ≪21세기 청춘송가≫라는 이름으로 담아냅니다. 아울러 기존의 ≪학습제일주의≫란과 ≪학습노트≫란을 옮겨싣습니다.

≪기획특집≫에서는 말그대로 2-3개의 특집기획을 정세에 맞게 게재합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 민중의 투쟁을 게재합니다. 6.15공동선언실현투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주한미군철수투쟁과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반통일세력단죄투쟁은 다음의 개별적인 고정란에 분산게재합니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에서는 주한미군철수라는 전략적인 노선에 의거하여 전개되고 있는 일상적인 반미대중투쟁과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동분쇄투쟁을 게재합



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철폐투쟁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구해체투쟁, 그리고 통일애국인사들인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투쟁을 게재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신념과 양심≫란을 옮겨싣습니다.

≪민중연대를 실현하자≫에서는 갈수록 가열화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투쟁과 노학, 농학연대투쟁, 그리고 노농학 기본계급계층과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을 게재합니다.

≪반통일세력을 단죄규탄한다≫에서는 6.15공동선언 이후 자주민주통일의 대세에 역행하며 온갖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본질을 폭로하며 그 죄행을 단죄규탄하는 내용들을 게재합니다.

≪분파주의를 청산하고 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자≫에서는 한국변혁운동대오의 고질적인 병폐이며 혁신과 단결을 위한 관건적 문제인 운동대오내의 분파주의를 청산하고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통신상에 공개된 자료들을 게재합니다.

≪통신연단≫에서는 그간 통신에 발표된 글 중 이상의 고정란들에서 제외된 좋은 글들을 게재합니다.

≪화제초점≫에서는 지난 기간 운동대오와 국민대중의 화제의 촛점이 되었던 자료를 게재합니다.

≪정론과 수필≫에서는 주로 이북언론기관에서 발표한 정론이나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비전향장기수의 수필들이나 이북을 방문한 국내외 통일애국인사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시와 노래≫에서는 주로 구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넷 구국전선, 평양방송, 그리고 통신상에 발표된 시와 노래를 게재합니다.

≪기념일≫에서는 향후 한달간 우리 운동대오가 기억하여야 할 기념일들을 그간 통신에 공개된 자료들을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월간 ≪통일여명≫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 선전을 중심으로 인터넷 통신망에 발표된 모든 변혁적 자료들을 풍부하게,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혁신과 투쟁은 계속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8월 20일
서울



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논설(편집국 보도 9호)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이후 급진전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그 변혁적 역할을 제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민주통일사상으로 교양하고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며 변혁적 역할을 제고하는데서 기본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세련되게 전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제 영역에서 주미철연대, 국보철연대, 민중연대, 시민연대, 통일연대 등 다양한 공투체들이 결성되어 있으며 장차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간고하고 장기적이며 복잡한 조직사상운동, 실천투쟁을 거쳐 다달은 오늘의 민족민주전선운동은 그러나 민족해방,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전진하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을 더욱 높은 수준을 강화발전하기 위한 예비는 바로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란 공산당이나 부르조아정당과는 달리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혁신정당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 당의 성격은 그 이념과 사회계급적 기초에 의하여 규정된다.

합법적 진보정당은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 반대로 부르조아이념이 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애국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한다.

또한 진보정당은 역시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변혁운동의 임무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계급정당이나 반대로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하며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계급을 대중지반으로 삼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전취목표는 사회주의정권이나 부르조아민주정권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권이 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투쟁방도는 대중투쟁이나 선거투쟁의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투쟁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선거투쟁, 의회투쟁을 적극 결합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세계변혁운동사와 특히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변혁세력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는 것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한 자주정권수립이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선거공간과 의회연단을 활용하여 대중을 교양조직하고 동원하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대중의식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비합법 전위조직이나 반합법적 대중조직, 통일전선조직과는 달리 합법적 수단과 공간을 통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의식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의식화의 위력한 수단인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교육기관을 일상적인 정당활동, 선전활동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정당은 자신의 강령과 정책을 국민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자제, 총선,

대선 등의 선거에 결합하거나 의회연단을 통하여 광범히 선전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당원을 대중조직이나 통일전선체에 파견하거나 대중조직의 핵심들을 인입함으로써 자신의 대중지반을 강화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을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에 결집시킨다.

진보정당은 통일전선사업을 최고수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정당형태의 조직으로서 국제통일전선운동의 경험으로 보아도, 한국의 60년대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건설하는데서 주동이 되었던 혁신정당의 경험으로 보아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진보적 이념과 광범한 대중지반에 기반하여 기본대중운동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운동단체도 결집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당들과의 제휴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조직력과 선전수단을 발동하고 선거공간 및 의회연단을 통하여 한국의 민족민주단체들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원호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투쟁의 원칙을 실천으로 구현하며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의 높이에서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건설은 제기될 수 있는 좌우편향을 경계하면서 원칙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자주민주통일을 그 지도이념과 강령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의 이념을 사회주의나 시민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기반하지 못한 그릇된 견해로서 각각 기성이론을 우리 사회에 기계적으로 대입시킨 교조주의적 좌편향과 변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량주의적 우편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변혁을 목표로 건설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은 응당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바탕하고 지난 수십성상의 간고한 변혁실천을 통하여 확증되고 내외에 공인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좌표, 자주민주통일을 그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층을 그 사회계급적 지반으로 삼아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소수정예분자들의 비합법적 전위정당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진보정당을 영도계급이라고 하여 노동자계급만의 계급정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편협한 좌경적 견해이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부정하며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으로 건설하는 것도 변혁적 원칙에서 일탈한 우경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한국변혁운동의 성격과 그 역량편성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양심적인 지식인의 기본동력만이 아니라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세력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그 기반 위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나 각계각층의 대중조직, 다양한 명칭의 전선조직은 조직형태와 포괄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긴밀히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이며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는 특성상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연계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기

본과제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건설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변혁운동은 대중조직, 전선조직만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견해와 반대로 진보정당의 의의를 절대화하며 대중조직, 전선조직의 의의를 폄하하는 편향들은 다같이 극복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그 어떤 시련과 탄압에도 끄덕하지 않으며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이라는 대중적 지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한편 그 실천적 성과를 조직하는 방향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실천투쟁의 열풍 속에서 그 성과를 조직하며 건설되는 진보정당만이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며 전투적인 정치부대로서 장성발전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대중투쟁에만 몰두하며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선거 및 의회 투쟁만을 정당건설의 동력으로 삼는 견해 역시 편향이 아닐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공동의 좌표를 지향하는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은 응당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에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거하여 건설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

지난 대선 시기의 ≪국민승리 21≫을 모체로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비록 원내진입은 좌절되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령에 내포하는 일정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전의 혁신정당들과 확연히 다른 진보정당이다.

50년대 진보당은 비록 200만표라는 상당한 득표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조봉암이라는 개인적 명망에 의거하였기에 이승만역적의 ≪간첩≫조작극에 무력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60년 4.19봉기 이후 건설되었던 사회당, 사회대중당은 40개단체를 모아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역시 대중적 지반이 취약하여 박정희파쇼도당의 탄압에 와해되었다.

8-90년대 한겨레당이나 민중당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며 선전하였으나 여러 한계를 노정하며 총선 후 해체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기본계급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대선, 총선 이후에도 갈수록 확대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는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성공가능성도 없으면서 ≪선거변혁≫의 환상만 심어주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는 민족민주세력의 우려를 크게 불식시켜주었으며 점차 민주노동당을 기본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노선이 대세를 이루게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와 혁신적 입장은 그간 진보정당건설에 소극적이었던 전국연합과 한총련 등의 민족민주세력으로 하여금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장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좌경적 부분을 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취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강령에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비과학적이고 교조주의적이며 좌경적인 목표로서 민주노동당이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는데서나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획득하는데서나 최대의 장애로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광범한 중간세력을 모두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기존의 부르조아정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역조직망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군중과 중간층을 폭넓게 인입하는 한편 부문조직망 체계를 완성할 때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연합이 지역간연합체의 한계를 조만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반해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 잠재력을 확인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중간층을 묶어세우는데서 우월하다는 점, 통일전선운동을 당차원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해서 향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데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며 주체세력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할 때,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지반축성은 질적으로 비약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원칙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전개함으로써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미자주를 주선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원칙적으로 견지하면서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조건에 맞게 신축성 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할 때 민주노동당은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민족민주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광범한 시민운동세력을 정치적으로 포괄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열풍속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만이 응당한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은 명백하다.

민주노동당이 당면한 내년의 양대선거를 발판으로 차후 총선에서 의회에 진입하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한다면 이는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고르게 승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민주노동당이기에 당선이 가능한 전략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전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제 민족민주세력의 합류가 실현된다면 민족민주대오의 정치세력화에 전환적 국면이 마련될 것이며 향후 선거국면과 정치정세는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을 인입하기 위하여 더욱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전환적 계기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격동적인 정세발전의 요구, 절박한 전선운동의 요구를 당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틀어쥐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애국적이며 통일전선적인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강화발전될 때,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승리를 향한 비약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

주체의 명곡파일을 게재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통보 (편집국 보도 25호)

주체의 혁명음악파일을 인터넷전국연합과 인터넷민주노동당에 게재합니다.

이 음악파일들은 주로 조선중앙방송이 자정 전후 시간대에 방송하던 노래와 연주들입니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주로 담은 이 혁명송가들이야말로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불멸의 명곡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이 30곡의 주체명곡파일을 ≪통일여명 창간 한돌≫ 기념으로 공개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경애하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선전으로 되는 한편 그간 청년주체주의자들의 인터넷잡지 월간 ≪통일여명≫을 아껴주신 애독자동지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표시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정치를 선군정치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음악정치라고도 합니다.

주체혁명사야말로 노래로 시작하여 노래로 전진하며 노래로 승리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동지들은 이 주체명곡파일들을 사색과 학습, 투쟁 시에 일상적으로 감상함으로써 생활과 활동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수 있는 또하나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음악파일공개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2월 7일
서울

음악파일 제목 (노래 20곡 연주 10곡)

노래

1. **김일셩**장군의 노래
2. **김정일**장군의 노래
3.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4. **김일셩**대원수 만세
5. 수령님 따라 천만리
6. 조선의 별
7. 반일전가
8. **김정일**화
9. 친근한 그 이름
10. 청원
11. 기다렸습니다
12.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13.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하함
14.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
15. 맹세한다 우리는
16. 승리의 열병식
17. 조선은 하나다
18. 내나라 제일로 좋아
19. 우리의 소원은 통일
20. 반갑습니다

연주

1.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하함
2.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3.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4. 축원의 꽃보라
5. 전사들은 영광드리네
6. 승리의 열병식
7. 우리를 보라
8. 우리 모두 영웅이 되자
9. 반제투쟁가
10. 조선은 하나다



통일여명 자료집

≪통일여명≫과 주체 90(1001)년에 공개된 통일여명 자료집 132권 (분할본, 출력용, 개정판 제외)의 제목과 조회수입니다. ≪2.16기념≫과 ≪4.15기념≫자료는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의 명의로 공개되었던 자료입니다.

▷ 조회수 : 12월 5일 현재, 인터넷 전국연합

≪2.16기념≫

★민족최대의 명절 2월 16일을 맞이하며 -조회 : 695
철학의 정립1 -조회 : 849
철학의 정립 2 -조회 : 517
민족해방철학 -조회 : 608
재미있는 철학강의 -조회 : 612
정통과 계승 -조회 : 489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조회 : 470
21세기 향도이념 - **김일성**, **김정일**주의 -조회 : 423
김정일장군 영도철학 -조회 : 422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조회 : 338
절세의 위인의 민족관 연구 -조회 : 322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조회 : 635
우리사상의 혁명 -조회 : 382
김일성주의 도해 -조회 : 459
주체사상 -조회 : 629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조회 : 489
주체의 철학사전 -조회 : 741
경제사전 -조회 : 496
정치사전 -조회 : 480
조선노동당 약사 -조회 : 474
닻은 올랐다 -조회 : 428
혁명의 여명 -조회 : 367
은하수 -조회 : 362
대지는 푸르다 -조회 : 363
봄우뢰 -조회 : 476
1932년 -조회 : 349
압록강 -조회 : 433
잊지못할 겨울 -조회 : 485
50년 여름 -조회 : 509
승리 -조회 : 480
백양나무 -조회 : 433
청춘송가 -조회 : 331
대학시절 -조회 : 390
쇠찌르레기 -조회 : 263
뻐꾹새가 노래하는 곳 -조회 : 274
애국시대 -조회 : 603
백두산 -조회 : 361
햇살들의 노래 -조회 : 336
현세의 한울님 -조회 : 237
민족주의문학에 대한 주체적 시각 -조회 : 278
전환기 한국학생운동의 방향성 -조회 : 530
▷ **총 40권**



≪4.15기념≫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회 : 533
주체철학 -조회 : 756
주체정치경제학 -조회 : 483
북한의 문예이론 -조회 : 364
한국사회성격논의의 재조명 -조회 : 496
통혁당 -조회 : 662
한국전위조직운동사 -조회 : 662
위대한 사랑 -조회 : 525
벗 -조회 : 316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조회 : 247
60년 후 -조회 : 332
김일성장군의 노래 ≪음악파일≫ -조회 : 501
김정일장군의 노래 ≪음악파일≫ -조회 : 306
▷ 총 10권 (음악파일 제외)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조회 :502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 (1) -조회 : 779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 (2) -조회 : 334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 (3) -조회 : 226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 (4) -조회 : 202
≪붉은 해발아래 항일혁명 20년≫ (5) -조회 : 307
≪영화예술론≫ -조회 : 280
≪꽃파는 처녀≫ -조회 : 301
총서《불멸의 력사》8 장편소설 - ≪혈로≫ -조회 : 496
장편소설 ≪우등불≫ -조회 : 344
장편소설 ≪불구름≫ -조회 : 283
장편소설 ≪우리의 벗≫ -조회 : 250
총서《불멸의 력사》장편소설 ≪평양은 선언한다≫ -조회 : 472
중편소설 ≪용해공들≫ -조회 : 221
단편소설집 ≪절정≫ -조회 : 352
총서《불멸의 향도》장편소설 - ≪푸른하늘≫ -조회 : 374
장편소설 ≪예지≫ -조회 : 361
≪붉은바위≫ -조회 : 526
▷ 총 17권

≪7.27≫

★ 7.27을 뜻깊게 맞이하며 -조회 : 240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조회 : 484
주체의 ≪철학사전≫ 완간본 -조회 : 588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평양의 봉화≫ -조회 : 291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 ≪조선의 힘≫ -조회 : 445
리인모선생 수필모음집 ≪령장과 전사≫ -조회 : 304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 -조회 : 114
베트남의 여학생의 이야기 ≪사이공의 흰옷≫ -조회 : 139
≪역사사전≫ 발췌본 -조회 : 285
경제사전(1) -조회 : 171
경제사전(2) -조회 : 160
정치사전(1) -조회 : 321
정치사전(2) -조회 : 184
▷ 총 12권



≪통일여명≫

★ 주체89(2000년)

12월 7일 통일여명 창간호 –조회 : 1,151

★ 주체90(2001)년

1월 27일 통일여명 2호 –조회 : 717
통일여명 2호(1) –조회 : 638
통일여명2호(2) –조회 : 763

2월 22일 통일여명 3호(2.16특집판) –조회 : 943

3월 2일 통일여명 2호 개정판(1) –조회 : 645
통일여명 2호 개정판(2) –조회 : 346

3월 20일 통일여명 4호 –조회 : 1064

4월 23일 통일여명 5호(4.15태양절특간호) –조회 : 790
통일여명 5호(4.15태양절특간호) – 출력용 조회 : 325
통일여명 5호(1) –조회 : 316
통일여명 5호(2) –조회 : 175

5월 7일 통일여명 5호(4.15태양절특간호) 수정본 –조회 : 555

5월 23일 통일여명 6호 –조회 : 925

5월 27일 통일여명 6호(개정판) –조회 : 509

6월 21일 통일여명 7호 –조회 : 936

7월 20일 통일여명 8호(1) –조회 : 372
통일여명 8호(2) –조회 : 492
통일여명 8호 – 출력용 조회 : 625
7월 24일 통일여명 8호 –조회 : 124

9월 4일 통일여명 9호 –조회 : 426
통일여명 9호(1) –조회 : 144
통일여명 9호(2) –조회 : 68

10월 3일 통일여명 10호 –조회 : 672
10월 4일 통일여명 10호 –조회 : 363
통일여명 10호(1) –조회 : 184
통일여명 10호(2) –조회 : 143

11월 1일 통일여명 11호 –조회 : 400

12월 4일 통일여명 12호 –조회 : 127
통일여명 12호(1) –조회 : 36
통일여명 12호(2) –조회 : 19

▷ **총 12권 (분할본, 개정판, 출력용 파일 제외)**



≪통일여명 단행본자료집≫

4월 3일 사상전 1 －조회 : 1,003
5월 7일 국가미사일방어체계(단행본) －조회 : 550
6월 9일 통일전선 －조회 : 1,265
- 통일전선 1(1) －조회 : 709
- 통일전선 1(2) －조회 : 370

6월 15일 6.15공동선언 －조회 : 770
- 6.15공동선언(1) －조회 : 301
- 6.15공동선언(2) －조회 : 170
- 6.15공동선언(3) －조회 : 146

6월 26일 6.25전쟁 －조회 : 703
7월 2일 2001년 상반기 주요논문집 －조회 : 910
7월 25일 변혁적 사업방법 －조회 : 800
민중적 사업작풍 －조회 : 626
7월 31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조회 : 846
8월 12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요노작집 －조회 : 552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요노작집 －조회 : 911
8월 25일 반이회창 －조회 : 297
반 조선일보 －조회 : 201
9월 4일 반미자주 －조회 : 418
- 반미자주(1) －조회 : 96
- 반미자주(2) －조회 : 43
- 반미자주(3) －조회 : 40
- 반미자주(4) －조회 : 42

일본군국주의 －조회 : 108
- 일본군국주의(1) －조회 : 30
- 일본군국주의(2) －조회 : 23
- 일본군국주의(3) －조회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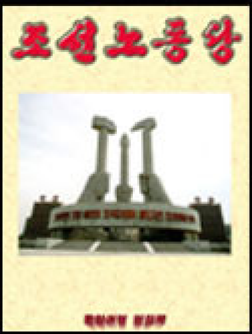
조국통일3대헌장 －조회 : 176
- 조국통일3대헌장(1) －조회 : 39
- 조국통일3대헌장(2) －조회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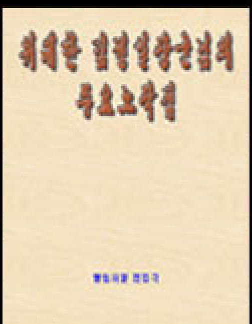
진보정당 －조회 : 492
국가보안법 －조회 : 179
9월 10일 부쉬의 대북강경정책 －조회 : 143
반이회창2(주제별) －조회 : 199
9월 25일 주한미군 －조회 : 195
주한미군범죄 －조회 : 115
주한미군범죄와 여성 －조회 : 99
한나라당 －조회 : 178
진보정당 관련 주요논문집 －조회 : 516
9월 28일 언론개혁 －조회 : 41
학원개혁 －조회 : 53
10월 18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1 －조회 : 437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2 －조회 : 146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3 －조회 : 77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4 －조회 : 92
조선노동당 1 －조회 : 229
조선노동당 2 －조회 : 75
조선노동당 3 －조회 : 66
조미공동코뮈니케 －조회 : 158
6.15공동선언과 민족통일촉진운동 －조회 : 131
조러 모크스바선언 －조회 : 84
11월 1일 브라질노동자당 관련논문 －조회 : 120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 －조회 : 144
≪인터넷 구국의 소리≫ －조회 : 172
12월 4일 ≪한호석소장의 주요논문집≫ －조회 :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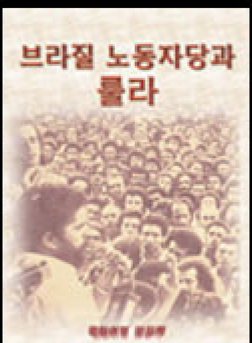
▷ 총 41권 (분할본, 출력용 파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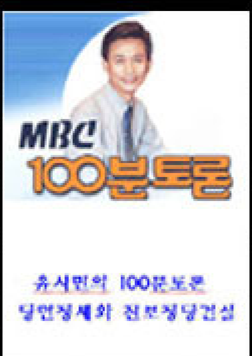












통일여명 자료집 조회수

≪통일여명≫과 통일여명 각종 단행본자료집의 총조회수와 전체 페이지수의 통계를 내었습니다. 단, 분할파일과 증보판은 제외하였습니다.

▷ 조회수 : 12월 5일 현재, 인터넷 전국연합

≪통일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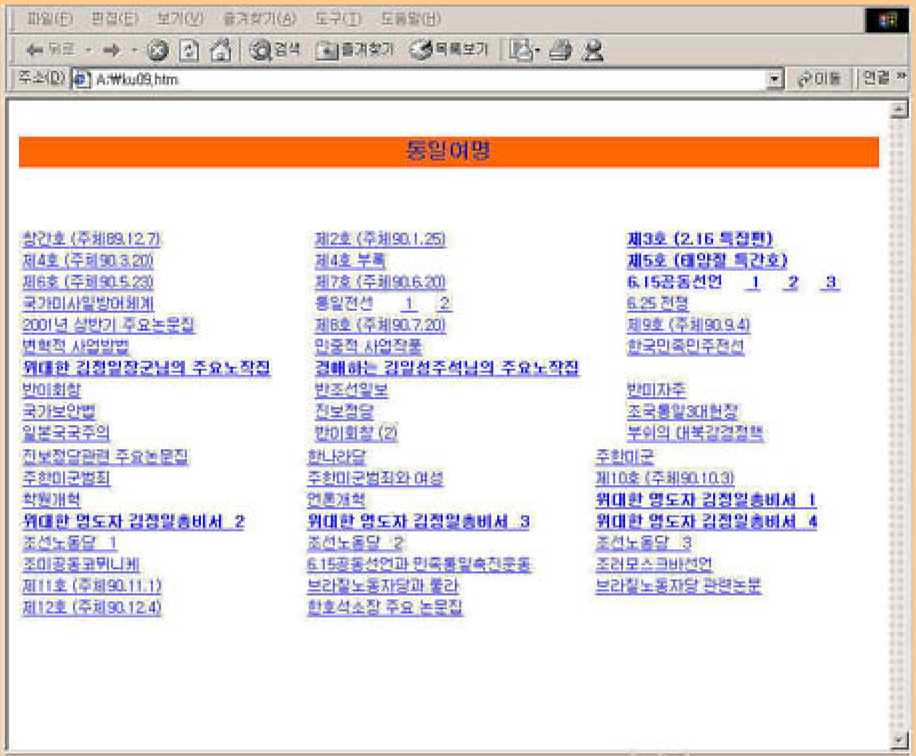
★ 주체89(2000년)

12월 7일 통일여명 창간호 (391p)－조회 : 1,151

★ 주체90(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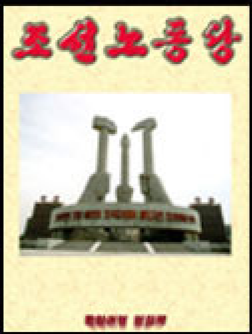
1월 27일 통일여명 2호 (431p)－조회 : 717
2월 22일 통일여명 3호 2.16특집판 (268p)－조회 : 943
3월 20일 통일여명 4호 (355p)－조회 : 1,064
4월 23일 통일여명 5호 4.15태양절특간호 (740p)－조회 : 790
5월 23일 통일여명 6호 (539p)－조회 : 925
6월 21일 통일여명 7호 (479p)－조회 : 936
7월 24일 통일여명 8호 (476p)－조회 : 124
9월 4일 통일여명 9호 (1,039p)－조회 : 426
10월 3일 통일여명 10호 (1,126p)－조회 : 672
11월 1일 통일여명 11호 (718p)－조회 : 400
12월 4일 통일여명 12호 (926p)－조회 : 127

▷ 총 12권 페이지 : 7,488　총 조회수 : 9,015















≪통일여명 단행본자료집≫

4월 3일	사상전 1(375p) -조회 : 1,003
5월 7일	국가미사일방어체계 (409p)-조회: 550
6월 9일	통일전선 (1,282p)-조회 : 1,265
6월 15일	6.15공동선언 (1,195p)-조회 : 770
6월 26일	6.25전쟁 (462p)-조회 : 703
7월 2일	2001년 상반기 주요논문집 (109p)-조회 : 910
7월 25일	변혁적 사업방법 (797p)-조회 : 800
	민중적 사업작풍 (594p)-조회 : 626
7월 31일	한국민족민주전선 (460p)-조회 : 846
8월 12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요노작집 (901p)-조회 : 552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요노작집 (903p)-조회 : 911
8월 25일	반이회창 (183p)-조회 : 297
	반 조선일보 (429p)-조회 : 201
9월 4일	반미자주 (1,929p)-조회 : 418
	일본군국주의 (1,780p)-조회 : 108
	조국통일3대헌장 (1,158p)-조회 : 176
	진보정당 (384p)-조회 : 492
	국가보안법 (738p)-조회 : 179
9월 10일	부쉬의 대북강경정책 (580p)-조회 : 143
	반이회창2 (214p)-조회 : 199
9월 25일	주한미군 (872p)-조회 : 195
	주한미군범죄 (433p)-조회 : 115
	주한미군범죄와 여성 (214p)-조회 : 99
	한나라당 (303p)-조회 : 178
	진보정당 관련 주요논문집 (72p)-조회 : 516
9월 28일	언론개혁 (556p)-조회 : 41
	학원개혁 (231p)-조회 : 53
10월 18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1 (558p)-조회 : 437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2 (686p)-조회 : 146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3 (869p)-조회 : 77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 4 (846p)-조회 : 92
	조선노동당 1 (603p)-조회 : 229
	조선노동당 2 (580p)-조회 : 75
	조선노동당 3 (547p)-조회 : 66
	조미공동코뮈니케 (1,648p)-조회 : 158
	6.15공동선언과 민족통일촉진운동 (1,302p)-조회 : 131
	조러 모크스바선언 (624p)-조회 : 84
11월 1일	브라질노동자당 관련논문 (122p)-조회 : 120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 (127p)-조회 : 144
	≪인터넷 구국의 소리≫ (225p)-조회 : 172
12월 4일	≪한호석소장의 주요논문집≫ (222p)-조회 : 265

▷ 총 41권 페이지 수 : 26,522　총조회수 : 14,542

월간 ≪통일여명≫ 창간 한돌을 맞이하며

통일여명 편집국 결의문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3호)

오늘로 월간 ≪통일여명≫은 창간 한돌을 맞이합니다.

월간 ≪통일여명≫은 주체 89(2000)년 12월 7일의 첫호부터 시작하여 매월 어김없이 발간되어 오늘로서 12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먼저 그간 ≪통일여명≫을 애독해 주신 독자동지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편집국은 지난 기간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파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며 월간 ≪통일여명≫과 각종 단행본자료집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우리 편집국은 또한 지난 ≪고난의 행군≫시절 폐기되었던 각종 주체사상자료들을 시급히 복원하는 한편 이를 오늘의 시대적 조건과 활동가들의 요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편집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우리 편집국은 또한 격동의 시대, 인터넷시대에 맞는 참신한 편집형식과 공고한 배포체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뜻깊은 통일여명 창간 한돌을 맞이하며 우리 편집국은 새로운 혁신의 각오와 의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편집국은 지난 기간의 선전사업에 기초하여 향후에는 보다 혁신적이며 전투적인 선전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편집국은 우선 선전내용에서 경애하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며 특색 있게 선전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필승불패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 6.15공동선언실현과 연방제에 대한 선전사업을 일관되게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편집국은 또한 선전 형식과 방법에서 활동가동지들의 요구와 시대추이에 맞는 참신하고 세련된 형식과 방법을 적극 탐구하고 이를 새로운 전형으로 현실화할 것입니다.

우리 편집국은 또한 편집국성원들을 주체의 참된 문필전사로 준비시켜 정치사상적 자질에서나 실무적 능력에서나 정세발전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혁신과 투쟁에 의하여 월간 ≪통일여명≫과 각종 자료집이 내용과 형식의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의 인터넷기관지, 인터넷자료집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편집국은 사상론과 혁명적 붓대중시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향후에도 변함없이 이 막중한 사업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 없이 불태울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2월 7일
서울

월간 ≪통일여명≫ 창간 한돌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6.15주간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공동축하문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4호)

어느덧 월간 ≪통일여명≫이 창간된 지 한돌이 흘렀습니다.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의 인터넷기관지를 지향하며 창간된 월간 ≪통일여명≫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였으며 새로운 인터넷선전의 전형을 창조하였습니다.

창간호부터 12호에 이르는 월간 ≪통일여명≫은 그 자체로 편집국동지들의 헌신과 투쟁의 역사이며 새로운 인터넷잡지의 전형으로 됩니다.

≪국가미사일방어체계≫로부터 시작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통일전선≫, ≪진보정당≫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자료집 또한 편집국동지들의 혁신과 전진의 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단시간에 방대한 분량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장군≫과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발간한 사실은 통일여명 편집국동지들의 충실성과 헌신성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인터넷선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는 적지 않은 성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그간 동지들의 투쟁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자료들을 비롯하여 전위당의 노선정책자료, 각종 주체사상자료들이 전산화되어 인터넷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파괴되거나 유실된 자료들이 동지들의 주동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헌신투쟁에 의하여 거의 복원되었으며 전산화되어 인터넷과 시디로 배포된 만큼 향후에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그간 동지들의 투쟁과 모범에 의하여 경애하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영세불후의 주체사상,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인터넷선전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보편화되어 자연스러운 일로 되었습니다.

동지들이 검색과 학습에 용이한 한글파일편집형식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를 민족민주단체의 자료게시판에 정상적으로 게재하며 광범히 전파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전방법이 개척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간 동지들이 보여준 혁명적인 투쟁기풍은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의 기개를 널리 과시하며 운동대오에 하나의 활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동지들이 보여준 선전에서의 기존상식과 금기를 깨는 대담성과 혁신성, 최단시간내에 방대한 선전자료집을 발간한 속도성과 전투성, 구속과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각오와 투지는 고난의 행군이 남긴 여진을 일소하고 통일혁명의 승리를 낙관하는 일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여명≫ 편집국의 지난 활동을 통하여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상사업은 혁명투쟁의 선행공정이라는 사상론과 주체의 혁명적 붓대중시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올해 하반기를 혁신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담한 투쟁목표를 수립하며 이를 기어이 달성하는 투지를 보여주었으며 지금은 더욱 높은 투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말겠다는 열화 같은 투쟁의지에 넘쳐 있습니다.

≪통일여명≫의 창간이 통일혁명의 여명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그 창간 한돌은 통일혁명의 전진과 도약을 알리는 계기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여명≫ 편집국이 지난 기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기풍, 백두의 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통일여명≫ 한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동지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12월 7일
서울